

1-5-2015

도시개발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척방안: 복음의소망 교회를 중심으로

Ju Won Han 한주원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한주원, "도시개발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척방안: 복음의소망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PLANTING A CHURCH IN THE NEW TOW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HOPE OF GOSPEL CHURCH

written by

JU WON 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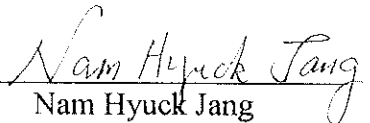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Nam Hyuck Jang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January 5, 2015

**AN EFFECTIVE STRATGEY FOR PLANTING A
CHURCH IN THE NEW TOW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HOPE OF GOSPEL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U WON HAN

JANUARY 2015

도시개발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척방안
- 복음의소망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장 남 혁 교수

한 주 원

2015년 1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Planting a Church in the New Town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Hope of Gospel Church

Ju Won Han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hurch's numerical stagnation and loss of credibility in society, one of the ways suggested for overcoming these challenges is planting churches with a healthy and biblical concept of the church and proper pastoral philosoph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n effective strategy for planting such a church.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surveys proper biblical and theological understandings of the church. It then examines the traditional church and the emerging church through the lens of those understandings, and then establishes an ecclesiology that overcomes weaknesses of the traditional church and the emerging church. This ecclesiology emphasizes that the church must be Kingdom-of-God centered; it must preserve traditional values; it must be missional; it must equip lay people; and it needs to generate another church, meaning planting churches.

Chapter 3 discusses theories and practices of church planting. This chapter explains essential factors for church planting (people, message, and mission), theoretical strategy (prayer, vision and value, and target group), and practical strategy (relationship, evangelism, leadership, small group, and blueprint). This chapter also deals with several obstacles to church planting.

Chapter 4 surveys the Songpa area where the Gospel Hope Church was planted, a new town area, in terms of history, geography, demography, economy, education, and religion. Chapter 5 describes how the Gospel Hope Church was

planted. After explaining why the Songpa area was selected, the chapter explains the pastoral philosophy and vision of the church, which are summarized as recovering biblical faith; emphasizing worship, mission, and education; and seeking to be a church that is clear, that repents, obeys, dreams, and is supporting. Chapter 6 then deals with how the Gospel Hope Church could grow as a healthier Christian community. It argues that discipleship training, family ministry, community service, evangelism, mission, and so forth could be helpful for the Gospel Hope Church to become a mature Christian church.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Nam Hyuck Jang,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말씀

성숙한 교회를 소망하고 바라지만 늘 성숙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의 현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하셨는데, 본 연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없이 부족한 본 연구를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장남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을 만나 뵈러 가는 길은 늘 기대감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풀러신학교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신학적인 동기를 부여하여주신 김세운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간단하고도 어려운 신학의 주제는 본 연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초석이었고 성숙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자양분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성석교회 김성운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회학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개포동교회의 이풍인 목사님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김유용 집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소망 교회의 개척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숙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목회자의 비전에 동참해주고 순종해주신 복음의소망 교회 성도들이 없었으면 본 연구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그분들의 눈물의 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귀한 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교회의 사모라는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본 연구를 마치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와, 언제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쁨이 되어 준 아들 예준과 딸 아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주원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교회의 신학적 정립	6
제 1 절 교회에 대한 정의	6
1. 복음 공동체	7
2. 예배 공동체	8
3. 성례전 공동체	10
제 2 절 전통적 교회론	11
1. 진리와의 밀접성	12
2. 신자들의 교통	13
3. 권세의 3중직	14
4. 전통적 교회론은 왜 비판을 받는가?	16
제 3 절 전통적 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17
1. 공동체 의식의 강화	17
2. 세상과의 소통	18
3. 거룩함의 회복	20
제 4 절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21
1.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21
2.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23
3.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24
4. 평신도를 향한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5. 개척교회와의 연계성	28

제 3 장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제	30
제 1 절 교회개척의 개념정립	30
1. 개척이란 무엇인가	31
2. 개척은 왜 필요한가	32
제 2 절 교회개척의 요소	34
1. 사람	34
2. 메시지	36
3. 사명	38
제 3 절 교회개척의 이론적 전략	39
1. 기도	40
2. 비전과 가치	41
3. 대상그룹과 대상지역	42
제 4 절 교회개척의 실제적 전략	45
1. 관계	46
2. 전도	47
3. 핵심그룹과 지도력 개발	47
4. 소그룹	48
5. 마스터 플랜	49
제 5 절 교회개척의 장애물	50
1. 지역교회의 포화현상	50
2. 개척비용	51
3. 목회자 개인의 역량	52
4. 구조적인 문제	53
5. 사회적인 문제	54
제 4 장 지역조사 및 개척 장소의 선정	55
제 1 절 송파구 개발지역 현황	55
1. 송파구의 도시화 역사	56

2. 개발지역의 현재와 미래	57
제 2 절 송파구 개발지역의 분석	59
1. 문정법조단지	59
2. 송파(위례)신도시 생활권 개발	60
가. 계획개요	60
나. 송파구 문정동 일대 생활권의 미래상	61
3.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61
제 3 절 지역적인 상황	63
1. 지리적인 상황	63
2. 사회적인 상황	64
3. 경제적인 상황	66
4. 교육적인 상황	67
5. 종교적인 상황	68
제 5 장 복음의소망 교회 개척의 실제	71
제 1 절 개척지역 연구와 선정 이유	71
1. 지리적 위치	71
2. 인구와 지역 특성	72
3. 교육&양육적인 이유	72
4. 선교적인 이유	73
제 2 절 목회철학, 집중사역, 비전	73
1. 믿음과 상식의 회복	73
2. 예배, 선교, 교육	75
3. 복음의소망 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	76
가. 선명한 교회	76
나. 회개하는 교회	77
다. 순종하는 교회	78
라. 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	79

마. Support(지원하는 교회)	79
제 3 절 교회개혁의 역사 및 성장 과정	80
1. 교회개혁의 과정	80
2. 지역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	81
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81
나. 인적자산의 부족	82
다. 재정의 부족	83
라. 목회자 개인의 역량부족	84
3. 교회의 역사와 현황	85
4. 교회의 특징	86
제 6 장 복음의소망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전략	89
제 1 절 목회적 과제	89
1. 평신도 사역자 양육	89
2. 가정 사역	90
3. 선교와 전도사역	92
4. 문화사역	92
제 2 절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	94
1. 명확한 소명의식	94
2. 구체적인 성장전략	95
가. 성경서원	95
나. 예배	96
다. 전도방식	97
라. 선교	99
3. 교회외부 성장전략	100
가. 문화접촉점	100
나. 아줌마 축제	101
다. 협동조합 활용	102

라. 관공서 후원	106
제 7 장 결론	108
제 1 절 요약	108
제 2 절 제언	110
참고문헌	112
Vita	117

표 · 그림 목차

<표1 송파구 역사 연대표>	56
<그림1>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57
<그림2> 송파구 개발지역의 현재 모습	58
<그림3> 문정법조단지와 복음의소망 교회 위치	59
<그림4> 송파(위례)신도시 개발컨셉과 전략	60
<그림5>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과 복음의소망 교회 위치	62
<표2> 기독교 단체 많은 시군구 10곳	6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위기의 실체는 충격적이고 실제적이다. 2005년 정부가 시행한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 수는 약 870만(18.7%) 정도였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이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870만 중 대략 150~250만 정도를 이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단이 아닌 기독교인의 숫자는 2005년을 기준으로 620~720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게 보인다. 한국사회의 인구저하, 기독교 자체의 부흥 동력의 상실, 그리고 지속되는 한국교회의 신뢰와 이미지 상실을 고려하면 30~40년 정도가 흐르면 400만 정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최윤식은 한국 기독교 인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저출산, 고령화, 한국교회의 이미지 등을 통계학 그래프로 분석)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060년에는 (이단을 제외한) 순수 기독교 인구는 300만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외형적인 숫자의 측면만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얼마나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을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²⁾ 결과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29.2%)이고, 다음으로 불교(28.0%), 개신교(21.3%)의 수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성 조사에서는 가톨릭이 32.7퍼센트, 불교가 26.6퍼센트, 개신교 8.6퍼센트로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41.

2) 한국일보, "종교별 신뢰도 가톨릭·불교·개신교 순", 2014, 2. 4.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타 종교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개신교 35.7%, 가톨릭 29.3%, 불교 13.2%)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무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대사회 봉사활동을 위선이라고 생각하거나 신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한국교회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도시지역에서의 교회개혁에 관한 내용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철학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회철학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의 ‘중심 가치 시스템’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심 가치 시스템’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이 부분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인 박영돈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몰락 위기는 교회의 하드웨어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참사를 보고도 부실건축의 허점과 비극을 되새기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작금의 실패를 통하여 성공신화라는 모래 위에 교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통렬히 깨우치지 못하는 것보다 더 개탄스러운 일은 없다. 한국교회의 시급한 가치는 교회를 작동하게 하는 하드웨어, 즉 ‘중심 가치 시스템’을 교체하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주관해 온 성장 제일주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이야말로 성장주의가 초래한 영적 폐허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꿈을 꾸어야 할 때다.³⁾

박영돈은 교인 수의 감소와 교회 성장 둔화를 위기로 보고 교회를 활성화할 부흥의 비결을 강구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외연만을 맴도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모습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고장 났음에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만 갈아 끼워 프로그램을 작동하려는 시도와도 같다고 말한다. 문제는 새로운 교회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교회의 꿈은 건강한 목회철학에서 발생하는 교회론이고, 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이 교회개혁이라고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

3) 박영돈,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 서울: IVP, 2014, 43.

지 않는가, 관심을 갖지 않는 영혼들에게 왜 목회자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기성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개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건강한 교회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이러한 고민들의 흔적들이 본 연구에 담겨질 것이다. 래리 크랩(Larry Crabb)은 ‘교회를 사람들에게 “팔리게”해주는 목회자들의 진짜 사명을 재고하라’⁴⁾고 말한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저하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 많은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의 숫자적 하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한 지역교회가 개척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증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더욱 중요한 의의는 풀러신학교 교수인 김세윤이 주장하는 ‘이미 출범한 하나님 나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⁵⁾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관한 입증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그는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함을 주장한다. 물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성교회 역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개척교회도 동반 성장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개척교회만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도시개발지역에서는 여전히 교회가 개척되지 않으면 교회를 볼 수 없는 형편인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도시가 개발되어지는 지역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 역시 상실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우선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주제에

4) Larry Crabb, *교회를 교회되게(Real Church)*,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1, 55 인용.

5) 김세윤 외2인, *하나님 나라 복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239 참조.

대한 기본적인 연구서적 및 논문, 선행 자료들을 근거하여 수집한 연구로서 건강한 교회관을 통해 재점검하고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과 활성화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실제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실제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은 복음의소망 교회에 한정된 연구이므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제7장으로 구성되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논문의 연구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밝히게 된다.

제2장에서는 교회의 신학적인 정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전통적 교회 연구를 통해서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극복해야 할 방안들을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들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개혁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교회개혁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교회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가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특히 대상그룹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복음의소망 교회의 핵심그룹 중의 하나인 맞벌이부부에 관한 심층면접을 기술함으로써 이론과 실재가 1차 자료에 근거를 두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교회가 개혁되는 과정에서의 방해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송파구에서의 교회개혁이 진행될 때, 선행되어지는 지역조사 및 장소선정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이다. 지리적, 인구적, 통계적인 분석은 보다 건강한 교회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좋은 동반자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반학문이 신학적인 정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복음의소망 교회 개혁의 실제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4장에서의 연구내용을 보다 교회론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목회자의 목회철학, 집중사역, 비전이 어떻게 교회가 개혁되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복음의소망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교회개혁의 생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지역에서

한 지역교회가 개척되고, 그 개척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생존하고 그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장과 성숙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관한 목회비전이자, 송파구 지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인 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론의 가능성을 소망하고, 복음의소망 교회가 한국교회 내에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제 2 장

교회의 신학적 정립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때문에 교회는 신학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충분히 신학적이어야 한다. 신학적이란 단어는 교회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모든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정한 지역의 교회개혁에 관해서 설명하려는 본 연구가 일정한 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지지와 공감을 형성해야 된다. 아래의 연구는 그러한 지지와 공감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관된 논증을 위해서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교회에 관한 정의를 먼저 서술한 후에 전통적 교회와 이머징 교회의 교회론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 1 절 교회에 대한 정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곧 교회이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중심적인 해석이고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론(原論)보다 각론(各論)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21세기의 개척교회 위에 적용할 것인가이다. 특별히 도시 개발지역에서 개척되는 개척교회가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정의가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론의 기준’⁶⁾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

6) 김길성, “교회의 속성과 표지”, *신학지남*, 제76권, 통권 제300호, 2009년 가을호, 62-78.

하는 교회론의 기준은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의미한다.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고, 표지는 '말씀의 선포와 청취, 성례의 합법적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말한다. 교회의 속성과 표지는 제도적 교회의 정의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면 교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망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집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체로 이해할 것이고, 그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한다.

1.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는 용어는 복음이 주제가 되고, 복음이 원동력이 되며, 복음이 모든 활동의 이유가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복음 공동체를 논하기에 앞서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요구된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을 위한 좋은 소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를 압축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⁷⁾은 분명히 복음의 핵심이다. 문제는 그러한 복음을 단순히 교리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적인 진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교회의 핵심사상으로 실존할 수 있는가? 본 연구자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다. 복음이 교회의 핵심주제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로 그 복음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한다면 조직교회가 복음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외부로 전달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는 선포할 복음이 있다. 그저 개인들에게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삶에만 선포하지 않는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공적

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2), 16-26.

교의를 형성하는 지속적인 대화의 일부분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우리는 경의를 표할만한 가치의 꾸러미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 사회가 깨닫게 될 사실과 진리로 선포한다...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세기의 선한 열매들을 보존하고 미래로 전달하려는 단 하나의 희망을 품는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미래는 야만족의 것이 될 것이다.⁸⁾

위의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복음은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 사회가 깨닫게 될 사실과 진리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잘 설명한 말이다. 교회는 복음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디에 담아서 전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자는 모든 인류와 사람 사회가 깨닫지 못하는 복음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교회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상황화라고 해도 좋고 성육신이라고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데, 그 도구가 공동체라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진리는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진리, 즉 복음은 공동체적이어야 하는데, (교회는)모든 사람이 진리를 찾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사회 역시 구원 받아야 할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복음 공동체는 교회 내에서 복음을 '들은'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들어야'할 공동체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되고, 그 선교적 교회가 마침내 성숙한 교회라는 이상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예배 공동체

본 연구자가 복음의소망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바로 예배 문제였다. 예배의 순서, 설교본문, 설교시간, 찬송가, 피아노 반주자, 기도자 등등, 실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였다. 다른 교회들의 예배를 살펴보고, 참여해보고, 연구해보았는데, 결국에는 개척하는 교회에 맞는 예배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예배신학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신학이란 주

8) Lesslie Newbigin,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The Gospel as Public Truth)*, 홍병룡 역 (서울: SFC, 2008), 73.

일예배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좁은 범위보다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의 깊이와 범위(벧전 2:4-5, 9절 참고)를 가리킨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명제'이다. 데이비드 피터슨(David Peterson)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상호교류'라고 정의한다.⁹⁾ '그의 백성'이라는 문구 속에는 예배 공동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하나님이 제시하고 가능하게 하시는데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예배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계시와 구원은 아브라함의 (영적)자손들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하나님 백성)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접촉점으로 해석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논의해야 할 것은 예배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자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척교회에서 바라본 예배는 그 의미가 조금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에서 바라보는 예배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와 유입되는 인구에게 폐쇄적인 예배 공동체는 복음전파의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예배가 전도의 도구 또는 수단은 아니다.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중요한 목적 자체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나이다. 당연히 그 목적은 영혼구원이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예배 공동체는 선교지향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에서의 예배'는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단계로서,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존재로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예배 공동체는 복음전파에 관한 사명감을 지역사회를 향한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본

9) David Peterson, *예배신학(Engaging with God: A Biblical Theology of Worship)*,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11-12.

10)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서울: CLC, 2011), 233-234.

연구자가 본 논문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지역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접촉점을 이루어갈 것인가. 반 겔더(Craig Van Gelder)의 견해처럼 지역교회는 '본성적으로 선교적이고, 이중언어적이고, 관계적'¹¹⁾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교회 자체가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접촉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방법론은 본 연구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서술하기로 한다.

3. 성례전 공동체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세례를 통하여 믿음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또한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역을 보존하는 무리들'¹²⁾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가시적인 교회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욱 붙잡히 여기고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도,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한다. 교회와 교회공동체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도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나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세례와 세례를 받은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나누는 성찬은 교회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는 '대항공동체'¹³⁾라는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는 교회의 정의를 이원론적으

11) Craig Van Gelder 외,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168-169.

12) John Calvin, *기독교강요(하)*, 원광연 역 (교양시: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1.

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때, 복음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적인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례전은 뚜렷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명쾌한 전도의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례전은 수단이 아니라 의식이자 목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성례공동체는 예배에서의 의식(Ritual)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의식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되면 교회는 열린(Open)공동체가 아니라 닫힌(Closed)공동체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성례전 공동체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정체성의 확립도 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외부공동체를 향해서 궁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전파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만드는 선교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마이클 호튼(Michael S. Horton)의 말대로, '극단적인 죄악은 극단적인 은혜로서만이 해결'¹⁴⁾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극단적인 정죄와 용서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이었고, 그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성례전이다. 때문에 성례전은 지극히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성례전 공동체가 교회론에 머물게 되면 단순히 거룩한 예배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에서 가장 극단적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란 성례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비그리스도인을 함께 참여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의 움직임이 존재해야 한다.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성례전이 아니라, 외부 지향성을 만들어가는 성례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중요한 가치이다.

제 2 절 전통적 교회론

제1절에서는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주관적이고 깊은 신학적인 성찰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복음, 예배, 성찬식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가

13) 최승근, *WS744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79.

14) Michael S. Horton, *People and Place: A Covenant Ecclesiology* (Kentucky: John Knox Press, 2008), 306.

위치한 지역을 섬겨야 함은 본 연구의 지속적인 논증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증은 전통적인 교회론을 살펴보는 것에 이른다. 전통적인 교회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의 위대하고 독특한 의의¹⁵⁾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의 신비, 신적인 기원, 그리스도와의 관계, 연속성, 미래를 통해서 교회의 적절성을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위대하고 독특한 의의는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고백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교회의 정의는 결코 이상주의적인 그림이 아니라, 치열한 자기고백과 교회를 부정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론을 본 논문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론 자체(즉 아래에서 논의되는 전통적인 교회론의 몇 가지 특징)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전통적인 교회론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본 연구가 성숙한 교회론을 향한 모색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적절성 자체가 의심 받는 최근의 한국사회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교회론은 교회가 마땅히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신학적으로 고민한 후에 이머징 교회를 연구해야 성숙한 교회론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의소망 교회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진리와의 밀접성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다. 앞부분에서 논의한 교회의 정의에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밀접한 모습으로 선명하게 지역사회에 드러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전통적인 교회는 진리와의 밀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 목회철학, 설교, 예배, 선교와 전도, 봉사 등 모든 교회의 활동영역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이미 포기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15) G. C. Berkouwer, *개혁주의 교회론(Studies and Dogmatics: The Church)*, 나용화·이승규 역 (서울: CLC, 2006), 11-13.

뜻인가. 설교시간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죄와 구원에 대한 내용만 말해야 하는가.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통교회가 말하는 진리와의 밀접성은 십자가 복음의 전달횟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와의 밀접성은 십자가 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하고 의지하는 일이다. 즉 '당연히 여기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복하는'¹⁶⁾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진리는 시대마다 상황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전통적 교회론 역시 이 부분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행위론이 우세한 현 한국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리의 중요성을 말함은 진부한 것이라고 취급되고 있다. 구원 얻은 후의 그리스도인들의 나머지 삶에도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교회가 진리와의 밀접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도 진리의 밀접성을 외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는 자력구원론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그 존재의의가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론이다. 상황화의 과정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가는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2. 신자들의 교통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지역교회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스스로 교회가 된다. 전통교회가 바라보는 교회론은 이처럼 그리스도인(信者)들의 교통함(공동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자들의 교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사람들 사이

16) Michael S. Horton,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Christless Christianity)*, 김성웅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161-164.

의 예배,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 믿는 사람들 사이의 봉사임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단헌(?)공동체로 보일 수 있다. 여기에서 ‘단헌있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단헌 있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는 성경적인 전통에서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신자들의 교통이라는 전통교회의 가치는 전통교회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고 판단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사건이기에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구원의 대상자인 그리스도인과 심판의 대상자인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종말론에서는 신자들의 교통은 ‘단헌’ 공동체의 순결함이라고 이해한다.¹⁷⁾ 이러한 해석은 초대교회를 염두에 두고 해석한 듯한데, 이 같은 견해가 지금도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교회의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한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의 어느 정도의 단절을 인정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사이의 긴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의 교통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3. 권세의 3중적

복음의소망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동 지역은 이단인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이 많은 편이다. 최근에 인접한 한 교회도 신천지의 활동으로 인해서 30여 명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전통교회가 강조하는 권세의 3중적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특히 현재의 개척현실에서는 개척교회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개척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 자체가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개척교회는 권세보다는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통교회의 교회론에서 교

17) Anthony A. Hoekema, *개혁신의 종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46-248.

회의 권세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의 원천인데, 권세의 성질 및 활용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을 한다. 본 연구자는 권세의 3중직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3중직을 통해서 전통교회의 교회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교회권세의 3중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㉔ 교리권, 교리권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반영으로 진리의 수호와 전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교회는 진리에 관하여 신성한 직무를 가지고 있으니 외인에게는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의 증인과 교사가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양육이라고 보면 된다.
- ㉕ 치리권, 치리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반영으로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포함한다. 이것은 특히 교회의 순결유지권과 질서유지권이라고도 논의된다. 교회의 권징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 ㉖ 사역권, 사역권은 공훈권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반영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최대의 공훈을 행하신 일을 유추해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의 특권이다. 교회의 일반적인 봉사가 여기에 해당된다.¹⁸⁾

위에서 보듯이, 교회의 3중 권세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전통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3중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교회의 교회다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머징 교회에서나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비판할 수 없는 원론이다. 문제는 3중 권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이다.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권세들을 어떻게 개척되는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권세들이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권세들이기에, 이 권세들은 지극히 선교지향적인 권세들이다.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접촉점을 찾기 위한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주요논제이다.

18)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중 교의신학VI(교회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4), 162-174.

4. 전통적 교회론은 왜 비판을 받는가?

앞에서도 보듯이, 전통적 교회론은 교회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개척교회가 가능한데, 실제로 본 연구자도 개척을 하기 전에 교회론에 관해서 다시 연구를 할 때,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의 한국교회는 많은 비판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진리와의 밀접성, 신자들의 교통, 권세의 3중직이라는 참으로 귀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정체가 되고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무색하게 한국교회는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원론만 외치고 있는 교회현장이 문제인 듯하다.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목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도구로 삼아서 교회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가지게 된다. 이것은 공동체 형성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소위 값싼 은혜로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게 된다. 사무엘 D. 리마(Samuel D. Rima)는 ‘집합적인 성공병’¹⁹⁾이라는 진단으로 전통적 교회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전통적 교회론이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통적 교회론이 과연 21세기의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전통적 교회가 주장하는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상실해가는 이유는 삶과 진리의 괴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 교회론은 여전히 진리만을 외치고 있으니, 불신자가 과연 그 진리를 수납하겠는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교회 자체가 수단인 동시에 목적’²⁰⁾임을 말한다. 그는 교회를 통합적인 존재로 이해하길 바란다. 통합적인 존재는 선교적인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예배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목적으로만 그쳐서는 의미가 약하고, 예배 자체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진리에 관심 없는 불신자에게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먼저 공동체에 진입하게 된 후에 진리를 전해야 함을 말한다. 레슬리 뉴비긴의 견해를 볼

19) Samuel D. Rima, *성공적인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the Successful Church)*, 황성철 역 (서울: 그리십, 2003). 82-93.

20)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180.

때, 한국교회는 빨리 진리를 전하고,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모든 과정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전통적 교회는 개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이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교회의 삶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삶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전통적 교회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그 가치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신뢰회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제 3 절 전통적 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제2절에서는 전통적 교회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적 교회가 이론 업적, 역사, 예배, 전도, 선교 등 모든 사역활동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속성과 표지가 되었다. 전통적 교회가 갖는 가치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맺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교회가 갖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마도 신학의 적용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 교회가 갖는 건강한 교회론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적용되어가는가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3절에서는 전통적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적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1. 공동체 의식의 강화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기에 관계의 핵심인 공동체는 소중하다. 전통적 교회도 공동체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살아가는 의식,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식,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식 등을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공동체 의식의 강화보다는 개념이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 속하기만 할뿐 구성원들과 별다른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²¹⁾ 같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 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세포조직처럼 수많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공동체를 인격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배제되면 생명은 사라지게 되고 서로를 목적과 수단으로만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무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전통적 교회에서 강조되는 교리적인 개념이나 조직적인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나 영성한 시스템은 교회를 커다란 위협에 빠뜨릴 수 있게 한다. 공동체 의식의 강화는 성경적인 개념과 시스템이 확보됨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관계정서라고도 볼 수 있다. 전통적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념이나 시스템의 부재보다는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정서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인 관계가 사라진 공동체는 예배와 성찬과 같은 의식에 참여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교회를 떠난 소위 ‘가나안 성도’를 배출하게 된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줄인 현대적인 용어로서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일컫는다.²²⁾ 흥미로운 사실은 가나안 성도는 공적예배와 같은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이들을 과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적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2. 세상과의 소통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라고 해도 무관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포스트모던 시

21)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김인중 목사에게 배우는 행복한 공동체의 비밀* (서울: 두란노, 2013), 21.

22)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20-21.

대²³⁾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지성환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다원주의와 탈권위가 핵심 키워드임을 말한다. 진리와 가치가 1,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해체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변화의 시대가 임한 것이다. 성경의 계시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보다는 자신의 감성과 주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신비적 세계를 향한 열망, 즉 영적인 신비에 관해서 열려 있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전통적 교회가 신비적인 방식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따라서 전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다.

요즈음에는 인간의 이성뿐 아니라 체험을 동반하는 믿음, 칭의와 더불어 중요한 성화의 강조, 소위 구도자들을 위한 모임들, 새로운 문화에 다가가려는 문화사역, 쉽게 다가가는 설교, 교회분립을 통한 전도사명의 감당,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품어주고 용서하려는 움직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적 교회 스스로 반성하려고 한다. 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전통적 교회가 전도중심교회로 변화되면 전통적 교회가 갖는 문제점을 많은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를 들자면, 인천에 위치한 부광교회의 전도중심목회²⁴⁾는 전통적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부광교회는 전통적 교회가 전도중심교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핵심가치를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부광교회의 김상현 담임목사는 교회의 외적성장보다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도들의 수평이동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도가 85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컨대, 어르신 식사대접, 지역 대청소, 노방전도 등의 다양한 접촉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통적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예컨대, 양육, 치유, 세상의 변화 등) 그 모든 가치를 전도중심체제로 바꾸는 가치의 전환으로 교회의 방향성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도중심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는 몸부림이

23) 지성환, “포스트모던 시대의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교,”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1), 24.

24) 김상현, *전도중심교회로 바꾸라 : 전통교회를 전도중심교회로 바꾸는 전략과 실천* (서울: 두란노, 2013), 16-20.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몸부림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부광교회와 같은 전도중심교회가 많아질 때, 전통적 교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본다.

3. 거룩함의 회복

전통적 교회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갖는 성경적인 가치를 재확립하는 길이다.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는 교회의 거룩함이 불신을 받게 되는 큰 요인으로 여겨진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보이는 모습들의 괴리는 비그리스도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까지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된다. 거룩성의 회복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거룩함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²⁵⁾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말은 성도들 개개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전통적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항상 죄 문제를 동반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거룩할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경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전통적 교회의 입장에서, 거룩함의 회복은 교회의 신뢰회복과 이미지 회복과도 연결된다.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세상과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통적 교회는 세상에서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한다. 그 선포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전파된다. 성도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는 자신뿐 아니라 가정, 회사, 이웃 등, 다양한 방면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는 회개를 통한

25) James I. Packer, *거룩의 재발견(Rediscovering Holiness)*, 장인식 역 (서울: 토기장이, 2011), 25.

거룩함의 회복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활사적 세계’²⁶⁾와 연결됨을 보여준다. 장진원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내적인 변화가 없는 교리화된 회심은 회심적인 변화가 없는 시스템적인 회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예배를 형식적인 의식으로 만들 수 있기에 예배를 강조하는 전통적 교회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회복일 것이다.

제 4 절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전통적 교회는 당연히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한다. 그럼에도 전통적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전통적 교회가 해결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회가 지향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래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본 연구자 스스로에게 주는 실천적인 메시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1.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약의 주요한 주제(‘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로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선포해왔던 성경의 중심사상이다. 본 연구자는 우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기를 원한다. 정확한 정의 가운데서 올바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풀러신학교 교수인 김세윤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 미래, 종말로 밀어버릴 것도 아니고, 하늘 위로 쏘아 올려버릴 것도

26) 장진원, “회심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이해,” (박사학위논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010), 341.

아닙니다. 우리는 실존의 매 순간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오늘 나의 실존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사탄의 각축장입니다. 바로 내 몸이 하나님과 사탄이 각기 '나의 통치를 받으라'며 경쟁적으로 각축하는 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법, 이중 사랑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²⁷⁾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개념을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에게 의존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아시고 인간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실패와 죄에서 구해 내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귀한 시민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으로 정리한다.²⁸⁾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목회방향과 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교회이다. 문제는 추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참여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를 신앙으로 사회변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 교회가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어서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며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본다. 지역사회에 들어간 지역교회가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그 지역의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가,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만열은 그것의 한 방안으로 '작은 교회운동'²⁹⁾을 제안하고 있고, 작은 교회운동을 통해서 개인, 가정, 사회 및 세속적인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부적으로 전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큰 교회를 지향하게 되면 돈과 권력 등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덮기 때문에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작은 교회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풀뿌리 운동과 같은데, 제도화되

27) 김세윤 외2인, *하나님 나라 복음*, 255.

28) Martyn Lloyd-Jones,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전의우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28.

29) 복음과상황, *그 사람의 서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291.

어가는 교회를 반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노력하여야함을 강조한다.

2.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당위성의 문제이다.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가치'는 교회가 지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재림, 회개와 구원, 세례와 성찬, 복음전파, 제자삼음,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등',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지켰던 가치들이다. 교회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 공동체와 전혀 구분이 될 수 없다.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지켜왔고 보존했던 전통적인 가치들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고, 그것에서부터 성숙한 교회는 출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가 가져야 할 전통적인 가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치의 핵심을 외면하고 가치의 외부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욱이 시작되는 개척교회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잘못 해석하면 전통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전통교회를 지향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다.

마이클 호튼(Michael S. Horton)은 전통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살롬(평화)³⁰⁾라고 판단을 내린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살롬은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서 공공사회에 임하는 평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은혜(특별은혜와 일반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살롬이다. 성숙한 교회는 바로 그 영원한 살롬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는 '교회의 목적이 창조 세계의 해방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온 창조 세계가 우리의 구속에 참여하는 일을 고대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의 교회의 행동은 언젠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바로 이 세상과 관련되어

30) Michael S. Horton,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The Christian Faith)*, 이용중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982-987.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성숙한 교회는 세상과의 접촉점을 찾고 근접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죄인으로서 심판도 중요하지만 회복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성숙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3.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루마니아(2002년, 배정양 선교사)와 우크라이나(2004년, 윤상수 선교사), 두 동부유럽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그 지역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선교지역이 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복음을 전파하던 지역이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자가 개척을 한 송파구 문정지구 역시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만나본 주민들의 대다수(80%)가 비그리스도인이었고, 일부(20%)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한 사람들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약 60%)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비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불교가 45퍼센트를 차지했고,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의 여러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가 30퍼센트이고, 무신론자가 2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러한 조사는 구두조사방식으로 진행되어서 통계적인 오차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자가 지역의 종교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자는 2014년 5월-6월 사이, 교회 인근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중에 100명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노방전도를 나간 시간은 주로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사이였고, 만난 사람들은 30대(23명), 40대(38명), 50대 이상(39명)이었고, 남성이 32명, 여성이 68명이었다. 물론 100명은 문정지구의 인구 숫자(문정1동, 22,454명, 문정2동, 16,180명)³¹⁾를 고려한다면 통계의 신뢰성이 높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종교성향을 파악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성향은 이 지역이 선교지라는 목회적 접근을 가능케 만든다.

성경적인 교회는 누가 교회이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무엇을 하도록 그 지역에 세워졌는가를 고민하는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본 연구

31) 송파구, “최근인구현황(주민등록인구)”, Online: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board.BoardApp&c=4002&list_id=AG0406001000&seq=48275&file_yn=Y&comment_yn=y&cate_id=AG0307001000 송파구 문정1,2동 인구 참조.

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선교적 교회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부터 타인지향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이다.³²⁾ ‘선교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우선 교회에서 교회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름 받은 상황으로 복음을 가져가는 것이고, 교회가 구체적인 문화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암호를 해독하는데 힘을 쓴다. 여기서 말하는 암호는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인 측면에서의 용어의 혼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을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교회가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에서부터 복음전파의 접촉점은 사라진다.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 성경에 기반을 두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화 안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개척교회이기에 아직은 개발지역으로의 입주가 약 2년 정도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건물을 중심으로 목회한다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예배처소가 건물이기 보다는 사람 자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에너지도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이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훈련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건물, 프로그램, 전문가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형성되는 선교적 교회’³³⁾는 타인지향적인 목회철학이 그 중심에 있다. 사람중심이라는 말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오도록 하는 교회가 아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뜻이다.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원이든,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아무데서나 만나도 괜찮다고 말한다. 가진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교회건물에 투입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선교적 교회가 갖는 대표적인 특성이 근접 공간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근접 공간이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³⁴⁾이다. 대구에 있는 새샘카페교회는 근접공간으로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으로 교회운영의 경제적인 부분도 감당하면서, 동시에 구제선교에 힘을 쏟으면서

32) Ed Stetzer and David Putman, *선교암호 해독하기(Breaking the Missional Code)*, 이후 천&황병배 역 (고양: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2), 75-81.

33) David Platt, *래디컬 투게더(Radical Together)*,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2), 107-113.

34) 새샘카페교회, Online: <http://cafe.naver.com/sesem/144>

카페를 지속적인 선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접 공간은 전통적인 교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독특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위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영리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에 교회가 이익집단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목회자가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이 질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에는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만났다면, 개척교회의 담임목사로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목회의 틀 자체를 바꾸었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회자의 대가 치르기'라고 말하고 싶다. 선교적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바로 목회철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호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실험하고 연구하는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의 '테스트 리스트'³⁵⁾를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본다. 그가 제시하는 테스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신들과 우상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의 리스트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제공한다. 목회자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

4. 평신도를 향한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척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개척교회가 꿈

35) Michael Frost, *위험한 교회(Exiles: living missionally in a post-christian culture)*, 이대현 역 (서울: SFC, 2009), 601-608.

을 펼치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없어서일 것이다. 본 연구자도 개척을 하면서 사람이 없음에 허망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였다. 전도를 해도 교회출석으로 연결되지 않고, 열심히 설교준비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늘 그 상태인 것을 보면 목회자는 당연히 낙심이 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성숙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성숙한 교회는 평신도를 향해서 재발전을 할 줄 아는 교회이다. 여기에서 재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전에는 평신도를 향한 발전이 존재했지만, 수동적인 평신도, 즉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의 교회 구성원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평신도가 목회자의 사역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어떠한 교회적인 판단이나 계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보고자 '제자훈련이라는 목회철학'³⁶⁾으로 평신도를 향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고(故)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일은 일시적인 신학사조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자훈련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과 그 소명에 일치하는 근본적인 과제라고 말한다. 즉 제자훈련은 교회성장학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목회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의 도구가 되어가고, 사변적인 성경공부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서부터 제자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반성이 제기될 필요성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보다 성숙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평신도에 대한 재발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지식을 쌓거나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평신도 설교주간'³⁷⁾을 계획하였다. 평신도 설교주간은 헬무트 티리케(Helmut Thielicke)에게 영향을 받아서 계획하게 되었다. 티리케는 목회자들의 관심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세부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와 같은 하나하나의 단어를 세밀히 연구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성경해석을 할

3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66.

37) Helmut Thielicke,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심일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43.

때에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하면 문자라는 나무에 집착한 나머지, 복음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1년에 두 번, 주일예배 설교를 평신도가 하고, 1년에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평신도가 설교를 하도록 한다. 물론 개척한 시간이 짧기에 아직 실행은 하지 못했지만, 2015년 목회계획 안에 평신도 설교주간이 세워져 있다. 성숙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역할구분은 있어도 존재론적인 구분은 없다. 목회자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평신도에게서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의지할 곳 없고 외롭다고 생각하면서도 평신도와 의 접촉을 꺼린다. ‘평신도를 통해서’ 신학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지, ‘평신도들과 더불어서’ 목회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평신도를 재발견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숙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판단한다.

5. 개척교회와의 연계성

개척교회와의 연계성이라는 문구는 개척교회도 과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숙한 교회를 말하면서 개척교회와의 연계를 말하는 것은 아마도 개척교회가 갖는 독특한 ‘소외’현상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교회와 이머징 교회의 교회론, 그리고 이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숙한 교회론이 개척교회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개척교회는 당장 생존자체가 큰 현실적인 문제인데, 교회론에 관한 논의는 너무나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아닌가? 다양한 방법론들(때로는 목회철학)을 개척교회에 적용을 할 때, 실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영화설교를 할 때, 때로는 내가 목회자인지, 영화 평론가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나 자신이 개척교회라는 나름대로의 방패를 가지고 목회자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목회적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딜레마 현상은 개척교회가 갖게 되는 ‘소외’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개척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소외’를 경험한다. 적은 공동체, 전도의 어려움, 사회에서의 외면, 심지어 동일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개척교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곤 한다. ‘소외’가 깊어지고 확산되면 개척교회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를 어떻게 극복하고 개척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까? 이머징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의 장점을 연계하여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교회개혁의 이론과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본 연구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소금과 빛'(마 5:13-16)이라는 교회의 기본적인 정체성 회복이라고 판단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당시에 그들은 모두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새로운 사회의 최초 핵심그룹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했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독특한 '이중적 정체성'³⁸⁾을 지혜롭게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중적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거룩함과 세속성을 일컫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서 세상의 삶에 깊이 잠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이중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독특성을 간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원칙은 개척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면 성숙한 교회론을 향한 연계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척교회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외'가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도시개발지역에서 개척된 본 교회 역시 거룩함과 세속성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38) John Stott,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서울: IVP, 2005), 111-115.

제 3 장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제

제2장에서는 교회의 신학적 정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체성 확립을 하고자 하였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오는 과제이기도 한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유는 목회자적인 접근으로 교회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목회자 개인이 바라보는 교회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지역교회 특히 개척되는 지역교회의 방향성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더욱이 목회자가 전통적인 교회관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이머징 교회(운동)의 지향성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시작되는 교회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자는 두 진영의 교회론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교회론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론을 정립하면서 복음의소망 교회라는 도시개발지역에서 개척되는 한 지역교회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제3장은 이러한 적용의 논리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개척의 이론적, 신학적, 목회적, 실제적인 진술들은 복음의소망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다가가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단축을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3장을 시작하도록 한다.

제 1 절 교회개척의 개념정립

교회개척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만큼 이 시대의 교회현실은 비참하고 서글프다. 교회는 개척되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지에 관한 당위성을 물어야 하는 것 자체가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는 안타까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개척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본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자 스스로가 성숙한 교회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

다. 교회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때, 본 연구자는 다시 이 연구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본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정의를 일일이 나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소망 교회의 개혁에 관한 정의와는 별개의 문제일뿐더러, 이미 형성된 수많은 의견을 편집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개혁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측면이라고 확신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는 개혁교회가 선교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한 모습이다. 이런 면에서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교회개혁에 관한 정의는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새롭게 세워진 한 교회가 기존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회중을 만들어가는 운동(행위)'³⁹⁾라고 하였다. 맥가브란의 교회개혁에 관한 정의는 교회의 확장과 신설이 주요한 배경이 된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재생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개혁은 재생산의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확장이나 신설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를 말하는데,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교회개혁을 공동체 중심으로 보고 싶다. 2장, 교회의 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회는 복음, 예배, 성찬식을 시행하는 공동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교회개혁은 교단가입과 같은 조직적인 측면이나 도시개발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물질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혁이란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체 중심이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개혁을 이해하게 되면 어쩌면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진리보다는 공동체 우선을 교회로 이해하는 위험성이

39) Donald A. McGavran & Winfield C. Arn, *Ten Steps for Church Growth* (New York: Harper&Row, 1977), 127.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보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교회개혁이 되기에 교회개혁에 대한 당위성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개혁을 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선교적인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성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수많은 교회가 개혁을 하고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개혁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에 관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척박한 개혁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본 연구자는 개혁에 대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개혁교회가 시작되면 목회자 자신과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게 된다. 많은 경우에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전도에 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때문에 비록 개혁교회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질 수 있어도, 그곳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이러한 견해는 지극히 선교학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폴 히버트(Paul G. Hibert)는 '성육신적 선교'⁴⁰⁾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매개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성육신적 선교는 민족에 대한 분석, 지역에 관한 연구와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복음전파의 열매를 바라본다. 성육신적 선교는 지역과 사람에 관한 상황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속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신학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 등', 다각적인 모습으로 연구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접근을 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왜 개혁을 어려운 시기에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도, 왜 이처럼 개혁이 어려운 시기에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

2. 개혁은 왜 필요한가

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때, 가장 큰 목회적인 질문은

40) Paul G. Hibert and E. Hibert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5), 363-364.

‘교회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개혁에 관한 실제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많은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송파구에서 또 다시 왜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해야 했다. 물론 도시개발지역이기에 교회가 없는 개발지구가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리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교회개혁의 당위성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복음, 예배, 성찬식을 시행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기에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한다. 선교지에서의 교회개혁 필요성은 민장배의 견해가 중요한데, 그는 복음의 확산으로 교회개혁을 이해한다. 그는 선교지에서의 교회개혁 필요성을 세 가지로 이해한다.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확대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하고, 성장이 멈춘 유·무형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하고, 도시개발지역과 같은 새로운 지역에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는 것은 하나님과 지역주민이 요구하기 있기 때문’으로 교회개혁의 당위성을 말한다.⁴¹⁾ 이것은 송파구 역시 선교지라는 본 연구자의 목회적인 철학과 판단을 근거로 한다.

위와 같은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개혁교회의 ‘생존’이다. 생존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회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개혁교회의 생존에 관한 예로 대한기독교감리회에 속한 개혁교회를 살펴볼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09년의 기간 동안 개혁교회 중에서 약 59퍼센트가 생존하였다고 한다.⁴²⁾ 실제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기독교감리회에 속한 개혁교회는 총 62개 교회가 개혁했고, 그 중에서 26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교회의 미성장이었다. 개혁을 준비하면서 강력한 소명의식으로 개혁을 하지만, 실제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제적인 재정과 인원수의 문제 앞에서 ‘왜 개혁을 했을까’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많다. 이 문제는 개혁교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의 생존은 자신과 성도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41) 민장배, *교회개혁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68-169.

42) 한국기독신문, “생존율 59%, 교회개혁은 신중히 검토해야”, 2012년 3월3일자.

고민하지 않고서는 개척교회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추상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2절에서 논의하는 교회개척의 요소를 통해서 개척교회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제 2 절 교회개척의 요소

교회개척은 성령의 사역이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말은 교회개척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개척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곤 한다. 교회는 목회자가 소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책임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교회개척의 요소에 관해서 말하기를 원하는데, 이 요소들은 ‘교회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⁴³⁾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책임영역인 교회를 인간 목회자가 스스로 개척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를 제조하고, 교회의 조립라인을 만들고, 교회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곳곳에 지점과 유사 교회들을 세우게 될 수도 있다’는 볼프강 짐손(Bolfgang Simson)의 주장은 교회개척의 요소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개척의 요소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개척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회개척의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서 사람, 메시지, 사명을 선택한 이유는 개척된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명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이다.

1. 사람

교회개척은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소위 개척멤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전도를 통해서 새가족이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세례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43) Wolfgang Simson, *가정교회(Houses that Change the World)*,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388.

것은 당연한 일이다.⁴⁴⁾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 헌법 중에서 헌법적 규칙 제1조(미조직 교회 신설립)을 보면,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년 신자 15인을 교계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교인이라고 해석을 한다. 세례교인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에서 개척교회의 모든 사역은 진행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개척멤버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척멤버를 삼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조건’⁴⁵⁾도 나름대로 존재한다. 명성훈은 개척멤버에 대한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 목회철학이나 소명이 담임목사와 동일할 것, 둘째, 상호보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 셋째, 충성심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담임목사 중심적인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담임목사가 교회의 핵심멤버가 되고 개척멤버들은 담임목사를 돕는 헬퍼역할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척멤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전, 은사, 성품을 갖춘 개척멤버가 함께 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춘 멤버가 목회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멤버는 기존교회의 핵심멤버로 섬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척교회 목회자는 이들을 자신의 교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교회와의 마찰이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지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롬 15:20절 참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담임목사와의 동역을 할 만한 조건을 갖춘 멤버들은 기존교회에 있고, 당장 개척을 위해서 사람은 필요한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결과, 개척교회를 위한 필수요소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즉 세례교인들만이 개척멤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까지 개척교회의 멤버들이 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란 기존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에 관해서 관심을

44)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부, 2005), 197.

45)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1997), 116-117.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개척하는 시기에 전도를 하여서 교회에 오게 된 초신자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람들도 충분히 개척교회의 핵심멤버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먼저 시작하였고, 두란노서원에서 지속적인 말씀양육과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갔다(사도행전 19:1-20절 참조). 때문에 개척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기독교 교리를 따라가는 것으로만 한정을 짓지 말고, 구원받을 영혼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척교회가 전도할 대상으로 삼는 목표그룹 역시 개척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선교적 교회에 다가서기 위한 것이 된다. 개척을 하는 장소에 관한 지역조사, 전도전략, 복음수용성이 높은 집단,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과감한 시도 등은 개척교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시도가 될 수 있다.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이처럼 교회 내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동체를 향한 식별’⁴⁶⁾로 이해한다. 공동체를 향한 식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논의하면, 교회가 많은 공동체로 나뉘어져서 특성화 전략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과 같은 연령대별, 또는 직업별로 구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올바른 상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교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공동체를 향한 온전한 식별은 그리스도인으로만 개척교회의 사람을 한정짓지 말고 목회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해 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공동체를 교회의 주요한 핵심으로 이해한 본 연구자의 연구방향의 논지와 동일한 것으로서 교회를 유기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즉 유기체로 이해할 때, 교회공동체는 존재가치가 있다.

2. 메시지

사실,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말하는 메시지는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46) Donald A. McGavran, *Ten Steps for Church Growth*, 74-79.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됨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게 하려는 전방위적인 메시지이다. 메시지가 개척교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은 메시지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교회가 선교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메시지는 개척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향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M. Lloyd-Jones)목사는 아래와 같이 이 부분을 설명한다.

교회는 선교동체(宣敎動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교회가 복음과 복음진리, 복음의 말씀에 대한 증인의 신분이라는 이 개념을 포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자체 내에 하나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자주 이것을 말해 왔습니다. 결국 말씀 전파자는 스스로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⁴⁷⁾

로이드 존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요구를 이루어 주고 유일한 만족을 주는 것은 메시지(특히 복음설교)외에는 없다고 말한다. 개인상담과 그 외의 모든 활동은 메시지를 보좌하는 수단이지 앞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은 한 지역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교회가 선교동체임을 인식하고 전파되어야 한다. 개척교회의 중대한 요소가 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가.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는 말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모든 말(최소한 교회 내에서 하는 언어)은 메시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코드와 문화를 충분히 인식한 후에 나오게 되는 메시지는 상황화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상황화된 메시지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의 언어(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 그들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상황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47) Martyn Lloyd-Jones, *목사와 설교*, 서문장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54

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황화된 메시지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기준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현실주의는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보면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들의 Context를 과도하게 인정하다보면, Text(성경본문)이 사라지고 왜곡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상황화된 메시지가 개척교회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개척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교회도 성도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지만, 개척교회는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은 개척교회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개척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기존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한 사람들,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초신자 또는 불신자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성경의 깊은 내용을 묵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감정(슬픔, 아픔, 괴로움, 낙심, 실망, 기쁨, 기대감 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를 원한다. 감정의 필요를 채우면서 동시에 본문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감정적인 필요는 메시지의 실제적인 순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복음의소망 교회는 주일1부(오전 11시)는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고, 주일2부(오후 3시)는 본문위주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고, 수요일예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기에 강해설교 철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고, 새벽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정했다.

3. 사명

사명 없이는 개척될 수 없다.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목회자 개인에게 사명이 요구된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있지만,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 목회자 개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목회자 개인을 다그치기 위한 체찍(물론 그런 면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보다는 안식처와 같은 사명이다. 개척을 하는 과정이나 개척교회를 섬길 때, 발생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혹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명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개척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사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개척되는 지역,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개인성향, 개척멤버들이 바라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개척교회의 사명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기에 '현실적'⁴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 측정가능, 달성가능, 관련성, 정해진 기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사명을 말해야 한다.

교회가 개척되는 상황에서 목회자 개인의 사명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명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자는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도시개발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될 때, 교회전체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연구할 때, 그것은 '선교적 패러다임'⁴⁹⁾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적 패러다임은 교회성장학을 넘어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기에 다문화 소통원리를 그 지역에 얼마나 잘 정착시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방향성을 의미하는 패러다임이 선교지향적임을 인정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선교 공동체라는 사명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가 왜 개척을 하였고, 개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은 무엇이고, 개척을 하게 됨으로 성도들이 져야 할 신앙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선교적인 패러다임이다.

제 3 절 교회개척의 이론적 전략

교회개척에는 전략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신학적이면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교회는 사람, 메시지, 사명으로 존재이유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존재이유는 그 후에 실제로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간다. 물론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되지만, 개척교회의 일꾼은 목회자와 개척멤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

48) 배종석·양혁승·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13), 78-79.

49) Elmer L. Towns외,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246-247.

회개척은 '어떻게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교회개척은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멈출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개척은 교회 전체의 중심을 잡아야 할 이론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길 원한다.

1. 기도

기도를 논의하기 전에 본 연구자는 스스로 한계를 짓기 원한다. 그것은 교회개척의 이론적 전략을 말할 때, 기도는 교회개척을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기도모임을 갖는다. 목회자 개인 또는 개척멤버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개척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기도모임이 교회가 개척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기도가 개척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가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기도를 신학적으로 논의하면서 연구한다는 사실이 지극히 목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서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기도를 논할 때에는 개척교회에서 해야 할 기도의 정체성 부분에서 관해서 다루기를 원한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또는 성도들)의 깨어진 아픔들을 만나게 된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학업과 취업의 문제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기도는 아무 거부감이 없는 복음전달의 도구가 된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기도는 개척교회에서 영혼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선교적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기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근접공간이 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기도는 성숙한 교회의 기본 소양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는 개척교회의 이론적인 전략으로서 기도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즉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개척되는 교회에서는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척교회는 교회성장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혼구원,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건강함, 가정과 인간관계 등, 한 영혼의 모든 삶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

질이다. 그래서 기도는 지극히 ‘관계적이고 전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긴급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목회사역’이라고 말한다.⁵⁰⁾ 목회자는 영혼의 긴급한 문제와 아픔이 가장 큰 긴급한 기도제목이 된다. 개척교회에서는 교회성장이 중요한 기도제목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접촉점을 찾아가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기도제목을 나눌 때에도 교회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영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의 아픔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기도모임을 이끌어 간다.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과 동일한 관심사와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접촉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2. 비전과 가치

비전과 가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비전을 숲이라고 한다면 가치는 숲을 이루는 나무와 같다.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비전과 가치는 목회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가치가 없는 개척교회는 없다. 다만 그 비전과 가치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현실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좀 더 명확한 논지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비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음의소망 교회의 비전은 CROSS이다. 십자가의 영문을 전제로 해서 앞글자로 비전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교회비전에 관한 소개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간략히 설명하면, C는 Clear(복음과 삶이 선명한 교회), R은 Repentance(회개하는 교회), O는 Obedience(순종하는 교회), S는 Super(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 S는 Support(지원하는 교회)이다. 성경적이고 현실 가능한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에게 나뉠대로의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김송식은 좋은 비전을 세우는 것에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명확한 비전, 도전적인 비전, 그림화 할 수 있는 비전, 사역의 미래를 보이는 비전, 성취가능성이 있는 비전, 이루어져야 하는 비전’이다.⁵¹⁾ 물론 이런 내용도 추상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세

50) Eugene H. Peterson, *다시 일어서는 목회(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차성구역 (서울: 좋은씨앗, 2004), 94.

51) 김송식, *교회개척전략* (서울: 로고스, 2008), 50-52.

우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으로 핵심가치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판단할 때, 교회의 핵심가치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달라지고, 목회자의 시간활용도 정해지며, 목회자의 설교방향도 결정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목적 자체도 결정된다. 때로는 핵심가치만 잘 정해도 개척교회의 방향성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핵심가치를 정했는데, 그 가치의 핵심은 '선교적인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이다. 중요한 키워드가 선교와 성숙인데, 해가 지나갈수록 후원과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늘리고, 직접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교회의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영혼들이 찾아오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내용은 복음의소망 교회의 실제적인 교회운명을 이야기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3. 대상그룹과 대상지역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확한 대상그룹과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이 존재해야 한다. 물론 교회는 특정계층과 연령대보다는 전 세대를 통합하는 공동체이다. 하지만 개척을 하게 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대상그룹과 대상지역이 정확하지 않다면, 목회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그룹은 함께 교회를 섬길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대상지역은 개척을 하게 되는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목회자는 대상그룹과 대상지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대상그룹을 정하는 것은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과학적인 방법'⁵²⁾을 동원하는 것도 있고, 영적인 부분으로 기도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대상그룹을 정해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상그룹과 대상지역이 교회개척의 이론적 전략이 되는 이유는 사람과 지역을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교회를 개척(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립예배)하기 전(前)이기 때문에 개척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

52) Daniel Sanchez and Ebbie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 박성창 역 (서울: 서로사랑, 2010), 222-238. 그 방법에는 '인구통계학적 방법,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자체적인 연구를 실시, 일반적인 종교조사, 지역사회 지도자 면담, 지역사회 주민조사, 복음 인식도 조사 등이 있다.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그룹과 대상지역은 이론적으로 보다 분명한 분석이 요구된다.

복음의소망 교회 대상지역은 송파구에서도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문정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위례(송파)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고, 개발지역을 바라보고 위치한 일반주택단지 및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강한 지역이고, 새로운 도시의 유입으로 인해서 교육과 문화의 업그레이드를 소망하는 지역이다. 또한 본 교회의 대상그룹은 주로 청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많은 편인데, 처음 개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5가정이 함께 하였는데, 모두 맞벌이 부부였다. 본 연구자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싶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심층면접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본 교회에 출석하는 한 부부를 선정해서 맞벌이 부부의 일상, 해결해야 하는 일, 교회에 바라는 점을 묻고 답을 구했다. 아래는 본 연구자와 K집사의 대화내용의 일부분이다. 심층면접은 2014년 9월 14일(주일)에 시행되었고 장소는 복음의소망 교회이다. 면접시간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였다. 여기에 서술하는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택한 것이다. K집사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인 K집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버스를 운전하는 직업을 가졌다. 자녀는 두 명이 있는데, 첫째는 중학교1학년(여자)이고 둘째는 초등학교3학년(남자)에 재학 중이다. 심층면접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대화식으로 편하게 진행하였다.

- 맞벌이 부부의 하루 일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 남편은 S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버스기사로 근무하는 관계로 출퇴근이 조금은 불규칙한 편이에요. 새벽에 출근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침 8시 정도에는 출근을 하죠. 저는 은행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 7시30분에는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은 아침8시에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아침8시 10분 정도에 학교에 가요.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편이에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퇴근을 하면 이르면 오후8시, 늦으면 밤10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해야 해요. 설거지, 빨래, 둘째 아이 공부 봐주는 일, 첫째와 둘째 준비물 챙겨주기 등이 끝나면 밤 11시가 넘을 때가 많죠. 그리고 지치듯이 잠을 자고 다시 아침6시에 일어나요. 남편은 출퇴근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을 맡기기에 아쉬운 점이 많아요. 주말에는 오전에는 잠을 자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시간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죠.

·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요?
· 저에게 가장 힘든 점은 삶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직장에 가고, 퇴근하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고...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쫓기듯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도 매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나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가족들 간에 서로 서먹해지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느끼게 돼요. 성경도 읽고 싶은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읽을 시간이 마땅치 않아요.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기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생각해요.

· 집사님께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실 때, 해결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제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양육이에요. 특별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에게 가장 미안하죠.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이 끝나면 잠시 집에 왔다가 저녁에는 태권도를 가요. 태권도를 갔다가 집에 오면 오후7시가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이 학교숙제를 혼자서 하지 못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밤8시에 집에 와서 아이 숙제를 봐주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 숙제를 봐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밤10시에 퇴근해서 왔는데, 둘째 아이가 저녁은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않고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맞벌이로 살아야 하는가, 회의감이 밀려왔죠. 큰 아이는 조금은 나은 편인데, 중학교1학년생인 딸은 방과 후에 학원을 가서 밤10시에 귀가를 해요. 혼자서 잘 하는 편이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딸을 엄마가 돌보아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학습부진, 영양상태, 그리고 직접 돌보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인성문제들이 큰 고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학교교육에 매이다 보니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 집사님께서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교회에 바라는 점은 아직은 공간이 허락되지 않지만, 공간이 허락된다면, 교회에 방과 후 돌봄교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먹여주고, 엄마나 아빠가 올 때까지

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회(문정동)와 집(개포동)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해요.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40분-5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 면접 후에 K집사의 둘째 아이는 본 연구자의 집에서 사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6시 정도까지 돌보아 주고 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 맞벌이 부부의 특징을 모두 대변할 수 없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아이들의 학업수준이나 태도와 습관도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만나본 5쌍의 맞벌이 부부가 염려하는 것은 모두 물질문제, 자녀양육, 영적 갈급함, 부부관계, 시댁과 처가와의 관계였다. 맞벌이 부부가 가지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은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대상그룹의 상황을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다. 물론 기도, 비전과 가치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개척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사실 대상그룹은 대상지역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맞벌이 부부가 어디에 거주하는가, 개발되는 지역인가, 전통적인 지역인가, 학구열이 높은 지역인가, 경제수준은 어떠한가,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등등, 대상그룹이 어떤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본 교회가 위치한 문정동 지역도 학구열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여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선생님의 수준도 낮아져서는 안 되어서, 일반학원 못지않은 교육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절 교회개척의 실제적 전략

교회개척의 이론적인 전략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사실은 이론과 실제적인 전략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론 없는 실체는 신학 없는 목회와 같고, 실제 없는 이론은 목회 없는 신학과 같기 때문에, 이론과 실체는 분리되지 않는다. 다만 논리적인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분리해서 서술하는데, 여기서 논의하는 관계, 전도, 핵심그룹과 지도력 개발, 소그룹, 마스터 플랜은 앞에서 논의한 이

론적인 전략을 토대로 개척교회의 생존, 성장, 그리고 성숙을 위한 목회론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이 주제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기에 짧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1. 관계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부딪치게 되는 부분이 관계의 문제이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인 관계를 한정적으로 말하기로 한다. 목회자는 개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대면하게 된다. 이 관계는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접착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한 인간관계는 개척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목회자를 영적으로 돕는 멘토와의 관계, 교회 내의 핵심멤버들과의 관계, 협력교회와의 관계, 총회&노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등 많은 관계가 목회자 앞에 있다. 때로는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는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큰 힘이 되기에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다양한 접착점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계형성은 아주 중요한 근접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본 연구자의 자녀들의 학부모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토요일에는 영어교실을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만나게 된다. 또한 추후에 논의가 될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인들과 주민들을 만나고, 영화설교를 통해서 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움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전제는 맞지만,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관계형성의 목적이 우리교회의 등록교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필요들을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2. 전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전도와 연결된다. 전도는 접촉점을 사용함으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때로는 강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척교회에서 전도는 교회의 존폐여부 또는 교회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가 쉽게 되지 않는 21세기 한국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전도와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개척교회가 어떻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선교적인 방향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는데, 그 결과 공동체를 통한 전도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이머징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비그리스도인들을 먼저 공동체에 초대 한 후, 공동체에 속하게 만든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다. 현대시대는 ‘하나님, 죄, 구원’이라는 용어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이 ‘낯선 단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공동체 자체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그들을 공동체에 초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⁵³⁾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화 및 독서 토론회에 초대, 차를 마시는 모임에 초대, 부부관계 세미나 초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단체로의 초대, 여행모임으로의 초대 등, 교회, 특히 개척교회는 다채로운 방식을 사용하여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기 전이라도 먼저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문제들은 추후에 본 교회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3. 핵심그룹과 지도력 개발

교회가 개척되고 그 개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개척교회의 현실이다. 개척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자가 여기에서 목표지향적인 교회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핵심그룹과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은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동의할 수 없다. 성숙한 교회는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핵심그룹과 지도력을 개발은 ‘동역자인 동시에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핵심그룹과 지도력 개발은 어떤 원리로 개척교회의 실제적 전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53) Rick Richardson,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Reimagining evangelism)*, 노종문 역 (서울: IVP, 2008), 73-74.

은사중심적인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은사가 무엇이고, 그 은사에 맞추어서 핵심그룹으로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지도자로 세워나간다. 사역과 은사를 맞추어서 교회 내의 역량을 높이는 이 역할은 '만인제사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인간의 힘으로 하는 부분은 줄어들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만인제사장과 은사중심사역의 연관성이다. 개척교회는 은사활용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때문에 핵심그룹은 만인제사장의 역할로 자신의 지도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자연적인 교회성장을 주장하는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tz)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방법 지향주의자와 영성 지상주의자'의 반대는 언제나 있어왔기에 목회자 개인의 만인제사장과 은사를 바라보는 목회철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⁵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은사와 만인제사장에 관한 신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그룹과 지도력이 개발되어 간다.

4. 소그룹

위에서 논의했듯이, 전도는 공동체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먼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한 후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21세기 개척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이다. 개척교회는 소그룹을 지향함으로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개척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개척교회는 분립개척이 아닌 한, 일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역량은 소그룹이 교회성장의 도구라는 말이 아니라, 소그룹에서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대형교회의 비인격화되어가는 성도간의 관계를 개척교회는 관계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닐 콜(Neil Cole)의 견해처럼, 성도들(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은 소그룹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참된 변화가 가능해진다. 인생의 참된 변화 속에서 그

54) Christian A. Schwartz,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외 (서울: NCD, 2009), 24-25.

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나오게 된다. 그는 소그룹을 통한 인생의 의미 있는 변화가 성경적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밝힌다. 첫째, 인간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전 4:9-12), 둘째, 소그룹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한다는 것(딤후 5:19), 셋째, 소그룹은 비밀의 보장이 쉽다는 것(마 18:15-17), 넷째, 소그룹은 자유롭게 모임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점이고(마 18:20), 다섯째로 소그룹은 재생산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견해는 소그룹이 개척교회의 실제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척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5. 마스터 플랜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 플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개척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체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한다. 때문에 지극히 실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카페교회인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주방장은 누가할지, 카페를 시작할 공간은 어디인지, 음악은 어떤 복음성가를 틀을 지 등’을 시작하게 된다. 본 연구자가 말하는 마스터 플랜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변화를 원한다. 이런 의문점이 든다. ‘잃은 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굳이 커피숍을 열 필요가 있는가? 이미 잃은 양들이 있는 커피숍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마스터 플랜은 시작된다. 이 고민은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를 주장하는 닐 콜(Neil Cole)의 고민과 동일하다. 닐 콜은 ‘끌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됨으로, 성육신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⁵⁶⁾ 예컨대, 커피숍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커피숍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교회사역의 문턱을 낮추어서 일주일에 몇 번만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모인 사람들 자체를 교회로 바라보는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 만드는 수동적인 교회는 마스터 플랜보다는 계획과 실행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말하는 성숙한 교회의 개척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큰 틀로 삼아서 개척교회가 나가야 할 부분을 상황화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55) Nei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07), 94-98.

56) Neil Cole,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 정성목 역 (서울: 가나북스, 2006), 62.

상황화는 모든 성도들이 동의, 공감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의미한다. 개척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관계, 전도, 핵심그룹과 지도력, 소그룹이 바로 마스터 플랜에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다.

제 5 절 교회개척의 장애물

지금까지 개척교회가 갖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논의들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사변적(思辨的)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교회개척은 실제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척교회의 목회자로서 본 연구에서도 논의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영적인 어려움들은 많다. 아무리 이론과 실제적인 전략을 적용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다시 목회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번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장애물에 관해서 살펴보길 원한다. 여기에서 분석하는 장애물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장애물들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디 이러한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여서 한국교회에 교회의 개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길 소망한다.

1. 지역교회의 포화현상

‘개척교회를 어디서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 질문을 하면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긴다.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놀란다. 수도권 신도시 상가에는 거의 한 교회씩 존재하고, 심지어 두 세 개의 교회가 아래 위층으로 공존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 공화국⁵⁷⁾’이라고 불릴만하다. 우리나라에서 편의점과 중식당보다 많은 것이 교회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교회를 또 개척하는 것이 목회

57) 정성규, “교회포화시대…성전은 건물 아닌 마음속에”, 한국일보, 2014년 4월4일자,

자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기에 교회를 개척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교회포화현상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지역인 송파구 문정동 지역을 선택하였다. 다행히 이 지역은 송파구 신도시(위례) 개발, 문정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16년이 되어서야 세 군데 모두 완공이 되기에 아직 교회는 없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정동과 장지동 주택지역에는 교회가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의 포화현상은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 숫자를 생각하면 아마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단의 노회차원에서의 교회통합을 고민하거나, 신대원과 같은 목회자 양성기관에서의 학생숫자의 수급문제를 조정하거나, 이미 개척한 교회들의 예배통합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지역교회의 포화현상은 앞으로도 개척을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개척비용

아마도 이 내용이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상가건물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월세, 전세, 집기구입, 음향기기, 간판, 목회자 생활비, 설립예배 비용, 전기, 상하수도 등등, 개척비용은 목회자와 개척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장애물이 사실이다. 물론 개척비용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분립개척, 상가건물이 아닌 개인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 또는 다양한 방법(개인이 많은 헌금을 하거나, 목회자 개인이 물질여력이 되거나)으로 개척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는 보편적인 개척비용에 관한 논지를 펴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나서 포기하는 이유는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 때문이다. 목회자 개인의 빚은 아니지만 교회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서 빚까지 생기면 목회자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개척교회 자체를 포기하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교회개척비용이 얼마나 큰 개척교회의 장애물이 되는지, 상록수명륜교회의 이상철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부끄럽지만 교회 개척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처음 들었던 것은 교회를 시작한지 불과 몇 주가 안 되어서였다. 집을 팔아 남은 돈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지하실에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 50만원이 걱정이 되었다. 생활비는 둘째 치고 교회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적어도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70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집주인에게 맹세하다시피 하여 얻은 지하실 교회인데 그때의 호기는 어디가고 앞으로 살아야 할 생각만 하면 눈앞이 캄캄했다.⁵⁸⁾

이런 고백은 개척교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것은 목회자 스스로가 교회부흥에 관한 큰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빛을 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상황에서 교회의 장소와 각종 집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3. 목회자 개인의 역량

개척교회뿐 아니라, 교회는 결국에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이제 시작되는 개척교회에서의 목회자 개인의 역량은 개척교회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척교회의 목회자는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 분주하다. 목회적인 모든 사항을 혼자서 해야 한다. 설교준비는 물론이고, 주일학교, 주보, 행정, 재정, 때로는 청소와 인테리어까지 목회자가 감당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척교회 목회자는 시간관리가 힘들 수 있다.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개념이 없기에 가정과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목회자의 시간관리가 정해진다. 그래서 목회자의 개인역량은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목회자 스스로가 개척교회 성장과 성숙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개척교회의 목회자는 개척교회에 대한 열정과 비전,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의 심정, 자기계발을 위한 말씀연구, 기도와 묵상을 통한 경건훈련 등등, 목회자가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때로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목회자가 힘에 겨울 수 있음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기준은 하용조 목사의 목회자 준비이다. 하용조 목사는

58) 이상철, *개척교회 1% 성공스토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93.

‘신학공부를 통한 지(知)적인 준비, 겸손과 온유를 갖춘 정(情)적인 준비, 순교를 각오하는 의지(意志)적인 준비’를 온누리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스스로에게 강조하였다.⁵⁹⁾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개척교회의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목회역량은 지(知), 정(情), 의(意)를 통합한 신앙인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4. 구조적인 문제

개척교회는 부흥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되어야 개척교회는 생존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개척을 한지 언제까지를 개척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답하기 애매한 질문이다. 3년 정도가 지나면 개척교회가 아닌 것인지, 3년이 안 되었어도 50명이 넘으면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운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개척되어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문다면, 구조적인 문제자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개척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교회장소가 교회성장을 막을 수 있고, 목회자가 생각하는 목표그룹이 잘못되었을 수 있고(목회자는 장년목회가 맞는데 본인은 청년목회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등), 교회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⁶⁰⁾

개척교회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내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거나, 음악회 또는 연주회를 한다거나, 산 기도를 간다거나, 야유회를 간다거나, 마을잔치 등을 열어서 교회를 알릴 필요가 있다. 물론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교회를 홍보해야 한다. 교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장 잘 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불리 그 장애물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장애물은 빨리 변화시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결단과 성도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59) 문성모, *하용조 목사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10), 37-41.

60) 이상대,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일곱 가지 방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8), 86-89.

5. 사회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개척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상황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개척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교회문제이다. 사회적 문제는 개척교회의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목회자가 넘을 수 없는 개척교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다. 상가에 들어서는 본 교회와 같은 경우에도 주변 이웃들이 지니는 사회적 비판(예컨대, 목회자의 도덕성, 교회의 소음과 주차문제, 임대료 문제 등)에 직면해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구자는 사회적 문제가 오히려 개척교회, 나아가 한국교회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필립 양시(Philip Yancey)는 이 세상은 많은 전쟁과 사고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교회가 희망’⁶¹⁾이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교회공동체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한 교회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 같은 고민들은 어려운 한국사회를 보다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각 지역의 개척교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소망으로 제4장의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61) 필립 양시(Philip Yancey), “한국교회 변혁 안하면 텅 빈 유물로 전락할 것,” 국민일보, 2014년 9월20일자.

제 4 장

지역조사 및 개척 장소의 선정

제3장에서는 교회개척의 이론과 실재를 살펴보면서 개척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장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소망 교회라는 지역교회가 개척되기 위한 지역조사와 개척 장소가 선정되는 일련의 이론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개척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교회론을 향해 나아가는가에 관한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음의소망교회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해 있다. 문정동은 송파구가 개발되어지는 구역과 기존의 토착지역과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송파구가 개발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1989년 문정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이후의 미개발된 지역도 볼 수 있는 이중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개발된 지역의 많은 구획들도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는 점이다. 즉 복음의소망 교회는 도시가 (현재적 또는 미래적으로)개발되어지는 송파구 문정동이라는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 송파구 개발지역 현황

정확한 지역 연구는 지역교회가 개척되는 여러 상황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특성을 갖추었는가, 사회학·인구학적인 특징을 만들어갔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등, ‘교회의 외부환경을 분석’⁶²⁾하는 것은 전략적인 모습

62) 배종석·양혁승·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13), 88-89. 여기서 말하

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물론 전략적인 모습 이면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개발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복음의소망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1. 송파구의 도시화 역사

송파구의 도시화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을 새롭게 선교지로서 파악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타당성을 제공하게 된다. ‘도시화 역사’라는 말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선교지가 되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 연구자는 송파구의 도시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지역이 선교적인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송파지역은 도시가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개발 중인’지역이다. 역동성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나는 근접공간의 폭이 상당히 넓다. 문제는 그 폭을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개발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아래의 표는 이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준다.

<표1 송파구 역사 연대표>⁶³⁾

일제시대 1914. 3. 1	광주군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구천면	총독부령 제111호
1963. 1.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서울시 성동구 편입(송파출장소신설)	법률 제1172호
1975. 10.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동구에서 강남구 분리 18개 행정동, 48개 법정동	대통령령 제7816호
1979. 10.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강남구에서 강동구 분리 15개 행정동	대통령령 제9630호
1988. 1.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에서 송파구 분리 -18개 행정동 14개 법정동	대통령령 제12367호
1988. 5.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자치제 실시 - 자치구 승격	법률 제4004

는 외부환경이란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기독교적인 특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교회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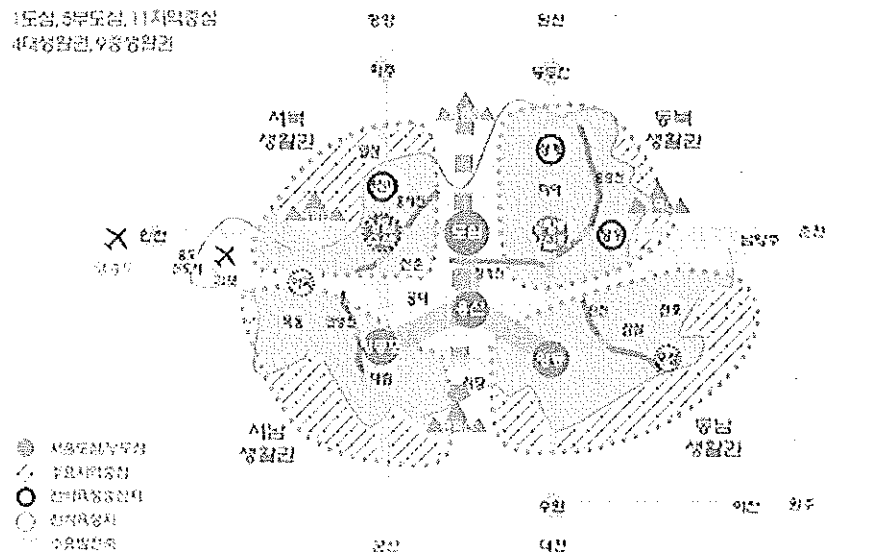
63) 송파구, “송파소개 연혁”, Online: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G0101001000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송파구는 1988년 1월1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분리&신설된 지역이다. 오랜 세월 동안 도시개발계획 자체가 없었던 지역이기에 서울의 타 지역보다 도시개발에 대한 열망과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지역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서 복음의소망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다분히 선교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폴 히버트(Paul G. Hibert)는 옛 전통과 새로운 가치의 충돌은 세 가지의 선택이 있음을 말하는데, ‘상황화의 거부, 무비판적 상황화, 비판적 상황화’이다.⁶⁴⁾ 본 연구자는 옛 것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비판적 상황화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선교적인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를 이루려는 동기가 되었다.

2. 개발지역의 현재와 미래

2014년 현재, 복음의소망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동 지역은 미래의 서울도시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문정동 지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1>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⁶⁵⁾



64)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의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4), 261-270.

65)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

그림1은 2020년에 동남생활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동남생활권 중에서 문정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전략육성지인 동시에 주요지역인 문정동 법조타운과 송파(위례)신도시와 인접지역이어서 개발에 관한 비전이 큰 지역이다. 2014년 7월 현재, 송파구 문정동 일대는 세 방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정법조단지, 송파(위례)신도시,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인데, 세 방향 모두 공정진척도가 유사해서 2016년 6월-10월경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 현재는 약 30-40%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역개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교회의 개척비전 역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지향성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필요에 관한 접촉점을 제공하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세 방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세 지역을 축소한 것이고, 그 지역에서 복음의소망 교회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2> 송파구 개발지역의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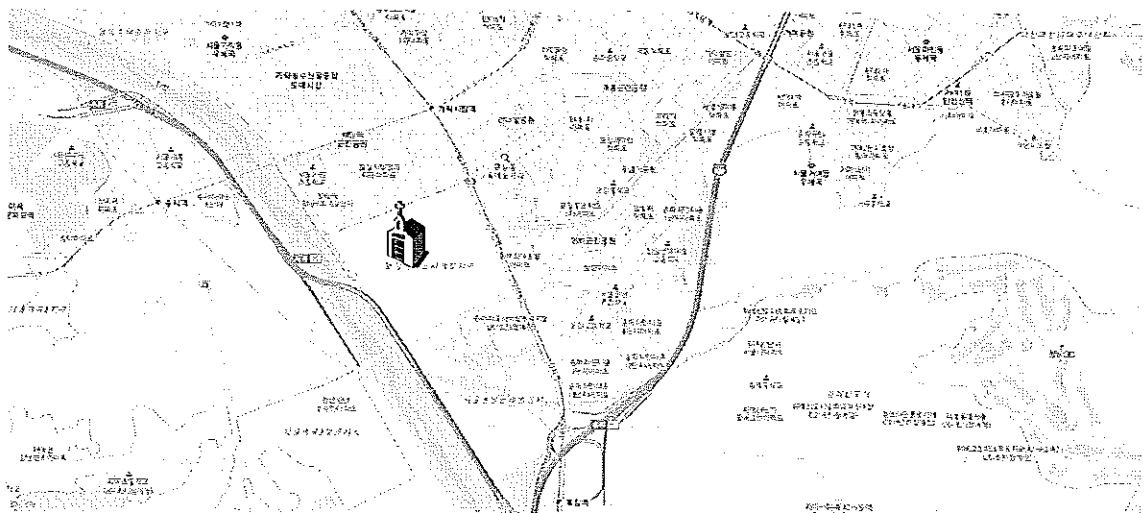


그림2는 복음의소망 교회가 미래적이고 선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송파구 문정지역은 아직 '개발 중'인 지역이고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주택지역이다. 2016년 10월경이면 세 곳의 개발이 모두 종료가 되기에 그 전에 개척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의 다양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정법조단지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접근, 위례(송파)신도시에서는 지역주민들

을 위한 접근, 동남권유통단지에서는 청년세대를 향한 접근을 개발하여서 이 지역이 선교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제 2 절 송파구 개발지역의 분석

제1절에서는 송파구 개발지역의 현황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왜 이 지역이 선교적인 가치가 충분한가에 관한 당위성을 살펴보았다. 1절은 송파구 도시화에 관한 거시적인 측면을 연구하였다면, 이제는 이 지역을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지역에서 개발될 수 있는 선교적인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로 한다. 복음의 소망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지역 인근의 지역적인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문정법조단지

문정법조단지는 문정동 인근의 도시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복음의소망 교회가 문정법조단지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3> 문정법조단지와 복음의소망 교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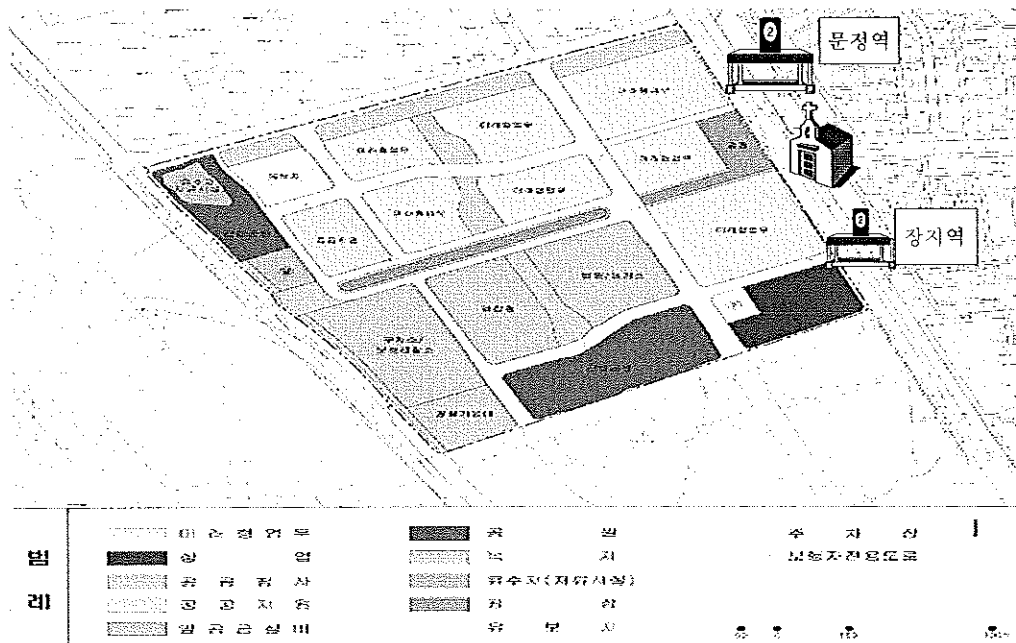


그림3은 문정법조단지 안에 어떠한 사회적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는지를 한 눈에 알게 한다. 단지 대부분이 공공청사 또는 업무단지로 조성이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법조단지 내에 주거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법조단지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자 서울시에서 개인사유보다는 공공장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지역특성은 복음의소망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전략적으로 알려준다.

2. 송파(위례)신도시 생활권 개발

가. 계획개요

송파(위례)신도시는 포화상태가 된 강남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는 도시개발 지역이다. 도시개발지역이라는 의미는 이 지역이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은 개발되는 신도시의 컨셉과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 송파(위례)신도시 개발컨셉과 전략⁶⁶⁾



그림4는 송파(위례)신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 역사와 문화를 품은 도시개발, 그리고 강남3구, 성남시, 하남

66) <http://www.songpa.go.kr/>

시와의 조화를 이룬 도시개발, 이 세 가지 방향이 송파(위례)신도시가 나아갈 방향이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은 강남3구가 가진 교육&문화의 혜택과 성남과 하남시가 갖는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송파구 문정동 일대 생활권의 미래상

송파(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복음의소망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동 일대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은 이 지역에서 개척하는 본 교회가 갖는 실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유입되는 주택은 16,747세대이고, 이주하는 인구수는 41,867인을 예상하고 있다.⁶⁷⁾ 2014년 5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는 송파구인데⁶⁸⁾, 도시개발로 인해서 추가되는 주택과 인구는 이 지역이 앞으로 서울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한다. 교통의 여건으로 보면, 서측으로는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의 인접, 삼성로-현릉로간 도로를 통해서 강남권 근접,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의 인접, 지하철 우남역 신설 등으로 인해서 서울 동남권의 교통요지가 될 것이다.

3.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동남권 유통단지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를 부족한 유통산업 촉진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동남권 유통단지는 단순히 유통을 위한 물류 활성화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역은 미래형 문화특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유통뿐 아니라 주민거주지역의 개발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도시개발은 송파구 문정지역의 개발이 범조단지, 송파(위례)신도시,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가 분리해서 개발되는 것이 서로 연계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복합단지는 사람들이 단순히 군집으로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소비와 주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척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행정적이고 도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아래의

67) <http://www.lh.or.kr/>(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i-sh.co.kr/>(SH공사)

68) 서울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의 인구수는 67만 8912명으로서 서울시 전체 인구수의 6.5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노원구(59만1596명), 강서구(57만4594명), 강남구(57만701명)가 뒤를 이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 5월3일자.

그림은 동남권 유통단지의 모습과 이 지역에서의 복음의소망 교회 위치이다.

<그림5>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과 복음의소망 교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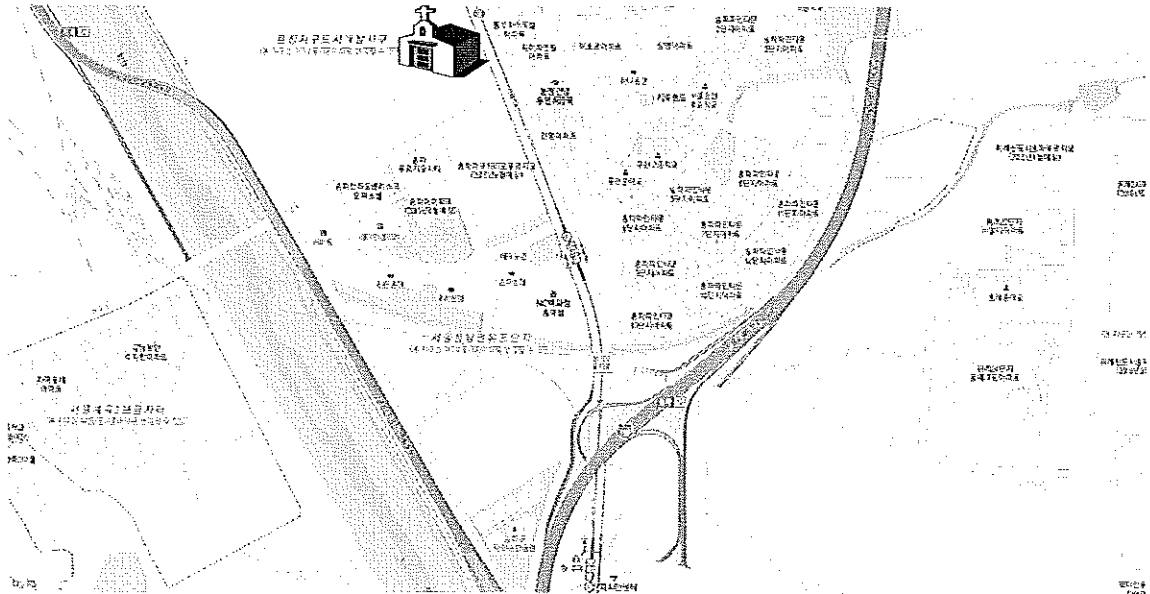


그림5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남권 유통단지는 서울의 물류지역 발전을 위한 상업단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5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동남권 유통단지 와 복음의소망 교회와의 거리는 도보로 5분 거리이다. 노방전도를 나갈 때, 동남권 유통단지에 나가게 되는데, 장지역 1번 출구와 교회와의 근접성을 이야기하면서 효과적인 전도법을 찾게 된다. 단순히 교회와의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에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소극장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극장은 ‘문화적인 접촉점’⁶⁹⁾을 찾기에 효과적이어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 직장인들을 위한 영화설교를 계획하고 있다.

69) 박준호, “관교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척전략-관교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115-118 참조.

제 3 절 지역적인 상황

제2절에서는 송파구 개발지역의 분석을 개발지역에 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면, 제3절에서는 교회가 위치한 문정지구의 다각적인 상황을 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려 한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미시적인 측면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지역적인 상황분석이 없는 선교적 접근은 추상적인 것이기에, 송파구 문정지구가 선교지로서의 어떠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 지역을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은 제5장 제1절에서 서술하는 개척지역 연구와 선정 이유에 관한 논리적인 연속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 지리적인 상황

이 지역의 지리적인 상황이 보여주는 특성들은 개발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 및 사회·문화적인 필요성에 개척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본 연구자는 송파구 문정지구의 핵심을 도시, 미래, 소비,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들로 종합해 본다. 그렇다면 그 핵심단어들을 개척교회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본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지역에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도시개발지역에 맞는 교회의 선교전략, 미래지향적인 양육, 소비에 익숙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적인 충족,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제시를 고민하게 되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준비하면서 교회가 개척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회는 회사와 같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다. 다만 지리적인 상황과 분석은 개척되는 교회가 그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가 개발되는 관계로 발생하는 영적인 공허함과 기대감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교회가 무엇을 개발할지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6장 복음의 소망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자세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2. 사회적인 상황

표1에서도 설명했듯이, 송파구 문정지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도시개발자체가 미진한 상태였다. 때문에 도시개발에 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큰 지역이고, 도시개발로 인한 교육, 환경, 주거의 개선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송파구민들의 기대는 송파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들의 기대감은 영적인 질(質)의 향상이라는 신앙적인 목표와 접착점을 이루게 한다. 본 연구자는 이 지역의 이 같은 사회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삶과 영적인 질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느냐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적인 상황을 좀 더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송파구 문정지구의 인구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맞벌이 부부(복음의소망 교회의 영적인 관심대상이기도 하다)의 사회적인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본 교회에 출석하는 '맞벌이 3가구'의 일주일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통해서 도시개발지역의 개척교회가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아래는 이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 월요일~금요일: 오전6시 기상, (남편)8시까지 회사출근, 아내는 9시까지 출근하는데, 초등학생 아이는 8시40분까지 등교, 중학생 아이는 8시20분까지 등교하는 관계로 가방과 숙제 등을 챙겨주면 오전 출근시간이 빠듯한 편이다. 내년(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생 오전9시 등교를 권고하는데, 출근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에 맡겨져서 오후6시 정도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부부의 퇴근시간은 빠르면 오후7시30분, 늦으면 오후10시가 넘는다. 아내는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시작한다. 아이 숙제 봐주기, 설거지, 빨래, 집 청소를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남편은 보통 10시가 넘는 시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과 가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부부간의 갈등(왜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사와 육아를 여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남편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

서는 가정경제문제로 본인이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남편에게 주장한다)이 유발되기도 한다. 오전6시에 기상하고 밤 12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드는 관계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고, 퇴근시간이 늦기 때문에 수요일예배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토요일: 이 날은 주로 밀린 가사일 또는 가정(주로 자녀양육)에 관계된 일을 하게 된다. 자녀들의 숙제와 공부를 봐주거나 함께 자연현장학습을 교외로 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세 가구 모두 아내의 몫이었고, 남편들은 출근을 하거나 집에서 쉬는 일을 선택한다. 이러한 현상(가정에 필요한 영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의 엄마치중현상)은 아빠와 자녀들 사이의 서먹함을 가져오게 되거나, 아빠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교회에서의 가정사역(부부관계회복,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 주일: 예배중심으로 하루일정이 조정된다. 특히 오전 11시 예배가 핵심인데, 11시에 맞추어서 늦잠을 자거나 아침식사를 거르는 일들이 많다. 오전 11시 예배 후,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도회와 주일학교 등을 마치면 오후 2시30분이다. 오후3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은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집 또는 친인척 집에 가게 된다. 주일저녁은 대부분 집에서 쉬면서 월요일을 준비하는 편이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린 후에 부부 동반 또는 가족끼리 외부 나들이를 간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주일이 영적인 위안이 되는 안식처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일 일정은 토요일에 교외로 나가지 않았다는 가정이다. 만약 토요일에 1박2일 일정으로 가정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주일성수가 쉽지 않은데, 이 가구들은 가끔씩 주일저녁<또는 밤>예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맞벌이 부부가 살아가는 일주일 라이프 사이클은 개척교회 입장에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교회가 지향했던 성전중심의 신앙생활, 즉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야, 주일예배의 가치를 지킬 수 없는 사회적 압박감을 맞벌이 부부는 가지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늦은 퇴근시간, 부부 또는 자녀와의 갈등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개척교회는 전통교회의 선입관으로 본다면 주일중심으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개척교회는 전통교회의 모습으로 개발도시지역에서 '생존'하기는 쉽지 않고, '무엇인가'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고민이 본 연구의 주요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결론부터 언급한다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협동조합을 통한)자녀양육 프로그램,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사역, 경제적인 필요를 위한 수익모델 창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예배와 소그룹 중심의 사역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경제적인 상황

송파구 문정지구의 도시개발은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이 큰 목표이다. 사실은 이 같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력'⁷⁰⁾도 간과할 수는 없다. 송파구 문정지구의 개발은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서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원 지역주민과 개발지역의 이주민들 간의 갈등은 성숙한 교회에서 요구되는 화목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론 송파구 전체의 경제적인 수준이 서울 전체에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송파구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6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예산확보를 100% 차지한 곳도 종로구와 중구, 그리고 송파구 3개구뿐이다)⁷¹⁾, 개발로 인한 소득불균형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은 오히려 교회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경제적인 추구로 인한 피로감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움직임이 복음전도의 큰 힘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함께 도시개발의 전 과정을 지내왔다는 것은 주민들과 교회와의 깊은 유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경제적인 감정의 공감을 해준다는 사실은 교회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도 학부시절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무역회사에서 약 6년간 업무경험이 있기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과 말씀전파에 대한 접촉점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지역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이 본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고민들은 교회와 협동조합, 교회와 수익모델이라는 방안을

70) <http://economy.donga.com/> 2013. 12. 28

71) 한국경제신문, "서울 자치구 예산확보율은 63%", 2014. 7. 15.

마련하게 되었다.

4. 교육적인 상황

아마도 송파구 문정지구의 도시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교육의 활성화일 것이다. 현재 복음의소망 교회와 인접한 학교는 초등학교 3곳(문정, 문현, 문덕 초등학교), 중학교 1곳(문현 중학교), 고등학교 2곳(문정, 문현 고등학교)인데, 문정지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교육의 양적인 활성화뿐 아니라 질적인 활성화도 이루어서 강남8학군에 비해서 열악했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적인 숫자의 확대와 질적인 교육역량에 대한 관심증가는 본 교회의 성장에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결혼기피현상 또는 육아·교육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이 강한 서울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오히려 교육적인 상황의 개선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교회주일학교가 무너져 가는 이 시대에 교회 인근에 신설되는 학교들은 교회의 예배당 사용과 공교육 후원(각 학교 별로 장학금 기탁)을 통해서 귀한 전도의 장(場)으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교회인근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 지역의 교육적인 상황과 각 가정이 염려하는 자녀양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문정동 근린공원, 교회인근 놀이터)갖게 되었다. 아래는 몇 가정이 말한 내용들이다.

· 친구들은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데 저와 남편은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이제 3개월인데,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해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겨우 인근에 있는 놀이방에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불안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제가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직장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으면 좋겠어요.

사무직 여 30세

·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영어와 수학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보냅니다. 이 지역은 조금 애매한 지역입니다. 교육적으로 좋은 학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적인 많이 떨어지는 학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의 엄

마들은 강남8학군 엄마들이 교육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어설폰 8학군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치동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주부 여 43세

· 미용실을 하다 보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집은 경기도 광주인데 미용실이 여기 있어서 둘째 아이(중학교 3학년)에게 신경을 잘 쓰지 못합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오는데 할 일도 많고 너무 피곤합니다. 남편도 야근이 많은 편이라서 아이 양육은 제가 많이 감당하는 편인데, 둘째의 성적문제로 남편과 자주 싸우는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가 착해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손님들이 늘기 시작하는데 미용실을 그만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자영업 여 45세

위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지역의 교육적인 상황은 각 가정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고민하는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육적인 상황은 남편과 아내의 지속적인 일과 육아의 병행은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상태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실제적이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의 학습향상을 위한 노력,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부부갈등과 가정의 위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본 교회는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교회는 어린이 도서관을 2015년 10월에 개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방과 후 양육시설을 2016년 3월에 시작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5. 종교적인 상황

송파구는 기독교 단체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사실 이 부분은 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조사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개척을 한 후에 한 조사결과를 보고 알게 되었다. 개척할 당시에 지역교회의 숫자를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지역이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본 교회는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기에 현재 위치한 문정동 57-8 인근의 교회숫자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송파구에 위치한 기독교 단체의 숫자는 이 지역의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참고할 만한 사항

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의 표2는 전국 시군구에 위치한 기독교 단체의 숫자이다.

<표2> 기독교 단체 많은 시군구 10곳⁷²⁾

기독교 단체(곳)	
인천 부평구	731
인천 남동구	716
서울 송파구	696
전북 완주시 완산구	690
대전 서구	679
인천 서구	617
경기 남양주시	609
전남 여수시	601
전북 군산시	599
경기 평택시	595

물론 표2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서울 송파구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위에서 말하는 숫자는 기독교 이단을 포함한 숫자이기에 큰 의미 없을 것이다. 실제로 본 교회에 인접한 한 교회는 신천지의 여파로 인해서 성도 숫자가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어서 교회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리고 본 교회와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전도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복음의소망 교회가 속한 송파구 문정동 57-8을 반경으로 3km이내에 본 교회가 속한 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교회가 10곳이 된다. 그리고 타 교단의 교회까지 포함하면 50곳 이상으로 추정 계산된다. 본 연구자는 이 같은 교회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현실이 개척교회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본 지역을 선교지로 파악한다면, 많은 교회의 숫자는 오히려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가 '공공성(公共性)에 대한 헌신'으로 무장된다면 교회숫자의 많음은 오히려 선교적인 측면에서 개발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이다.

양희송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선교적인 눈으로 보아야 함을 말하면서, '공공

72) <http://www.hani.co.kr/> 2014년 7월 25일, 자료: 전국사업체 조사 시군구별 사업세세분류별 현황, 2012년 기준 인용.

신학(Public Theology)⁷³⁾개념을 심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권력과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향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장기적인 구상으로 시민사회를 성숙시켜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섬기라는 것이다. 공공신학은 진보적인 교회에서 지지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한국사회를 선교지로 생각하는 도시개발지역의 개척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신학의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신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28일,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 사는 60대 박 모 씨가 두 딸과 함께 자살한 사건(일명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송파구 일대에 큰 아픔이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인권문제들을 주변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기도·후원·연구한다면 송파구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은 개척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신학을 함께할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이유는 교회가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기에 ‘함께 고민하여야 할 문제’들을 위한 접촉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73)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서울: 복있는사람, 2012), 206-209.

제 5 장

복음의소망 교회 개척의 실제

4장에서는 지역조사 및 개척 장소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본 교회가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개척하게 된 사회학적인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일반학문과도 같았던 위의 내용들은 사실 제5장을 위한 다리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5장의 내용은 개발지역에서의 개척에 관한 보다 신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성숙한 교회론을 지향하면서 개척하게 되었다. 성숙한 교회론은 지역교회가 속한 지역을 선교지로 이해하면서 모든 교회의 역량을 복음을 소망으로 전파하는 교회라고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정의를 한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내용들은 이번 장에서 설명되어질 것이다.

제 1 절 개척지역 연구와 선정 이유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는 개척지역에 관한 이해가 풍부해야 한다. 개척지역을 선교지로 인정하기 위해서 개척지역을 연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소망 교회가 송파구 문정지구라는 도시개발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신학적이어야 한다. 때문에 아래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4장에서 논했던 것보다는 보다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지리적 위치

본 연구자가 복음의소망 교회를 송파구 문정지구에 개척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리적인 위치가 갖는 장점이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

시개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문정법조단지가 개발 중이고, 역시 5분 거리에는 동남권 유통단지의 주택단지들이 개발 중이다. 그리고 자동차로 5분 거리에는 송파(위례)신도시가 개발 중이어서 세 부분에서 2016년을 목표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 자체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타 지역보다 덜하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원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접근이란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보다는, 물론 전통교회가 갖는 소중한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송파구 문정지구를 하나의 선교지로 이해하면서 선교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소극장을 통해서 찾아가는 예배, 학교를 후원하는 방식의 접근, 직장인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 콘서트 등은 도시가 개발되어지는 이 지역의 지리적인 위치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 인구와 지역 특성

이 지역의 인구는 지역의 특성과 연관성이 많다. 송파구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송파구는 지역의 개발이 가져다주는 것을 다섯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는 '경제적 활력, 복지 및 형평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⁷⁴⁾인데,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와 기존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인구 모두 이 다섯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3. 교육&양육적인 이유

문정법조단지, 송파(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의 주택단지를 통해서 송파구는 학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강남8학군과 대등한 학군을 조성해서 서울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본 연구자가 이 지역을 개척지역으로 삼고자 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회 인근에는 문덕·문현 초등학교, 문현 중학교, 문현·문덕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4군데가 위

74) 신상영, 맹다미,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89호, 2011. 5. 16). 1-2.

치하고 있어서 유아, 초등부, 청소년부의 전도를 위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4. 선교적인 이유

어찌 보면 선교적인 이유는 지역적·인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단체가 많은 송파구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고서는 기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의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미 많이 자리 잡은 지역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현재, 문정법조단지, 송파(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의 주거지역은 모두 개발 중이다. 세 곳 모두 2016년 5월 이후에 완공될 예정이니, 아직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현재 복음의소망 교회에서 바라본 세 군데는 모두 공사 중이다. 여름에는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공사장에서의 소음과 먼지가 심한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 개척을 준비하게 된 것은 선교적인 이유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 교회가 없는 개발지역, 물론 개발이 된 이후에는 종교 부지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기존지역보다는 교회의 난립이 덜한 지역이다. 인근지역교회와의 거리 및 종교인구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서 현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된 것이다.

제 2 절 목회철학, 집중사역, 비전

제1절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교회개척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면 제2절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 교회는 공공재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기에 교회, 특히 목회자가 갖는 목회철학, 집중사역, 그리고 비전은 교회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믿음과 상식의 회복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서 살아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회복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사실, 믿음의 회복을 목회철학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더욱이 냉혹한 목회현장에 던져진 개척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할 것이며, 그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개척교회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프로그램으로는 개척교회가 살 수 없고, 오직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개척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회철학이다.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본 연구자의 과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종교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상식을 상실하면 안 된다. 상식을 상실한 종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믿음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상식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본 연구자가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상식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척교회는 일꾼이 항상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즉, 수평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해서, 양육을 해서, 일꾼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목회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수평이동은 올바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타 교회에서 상처 받고 떠난 영혼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일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 같은 수평이동이 당연시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복음의소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적인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분당우리교회의 이찬수 목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 수평이동을 막자니 더 어색한 것 같고, 수평이동을 허용하자니 양 도둑질과 같고, 때문에 결정한 것이 수평이동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⁷⁵⁾ 본 연구자도

75) 이찬수,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우리교회 개척일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117-118.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예배, 선교, 교육

본 연구자는 교회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집중사역이 무엇일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였다. 개척교회가 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목회의 현실에서 바라보면,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당위성이 기준으로 개척교회를 바라보면 한계상황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패배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척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당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보다는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사역으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단순한 교회'⁷⁶⁾의 개념을 연구하게 되었고, 교회는 단순한 사역의 패턴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제자도를 목표로 움직이는 교회를 뜻한다. 제자도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교회라는 본 연구자의 목회철학이 스며든 것이기도 하고, 제자도를 위해서는 영적성숙이 필수적인데, 영적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역보다는 예배, 선교, 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복음의소망 교회 성도들의 열망이기도 하다.

복음의소망 교회가 갖는 집중사역은 예배, 선교, 교육이다.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주일1,2부 예배설교, 수요일예배 설교, 새벽예배 설교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예배를 위한 기도시간, 말씀묵상과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서 선교사역에 집중하는데,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를 병행하고, 찾아가는 전도를 통해서 예배와 선교를 연결하려고 한다. 또한 개척초창기부터 후원선교사를 연결하여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다. 예배와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본 교회의 집중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해시키고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주목할 점은 예배, 선교, 교육이 모두 제자도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성숙은 듣고(예배), 참여하고(선교), 배우는(교육) 전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는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제자도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76) Thom S. Rainer and Eric Geiger, *단순한 교회(Simple Church)*,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88-90.

이라고 할 수 있다.

3. 복음의소망 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

복음의소망 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은 십자가의 영문인 CROSS의 앞 글자를 시작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교회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본 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이 단순히 글자의 조합이나 추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세상 속에서의 선교적 교회라는 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찰스 콜슨(Charles W. Colson)은 모든 교회가 생태학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⁷⁷⁾ 바로 이 부분, 즉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복음의소망 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속에 담겨져 있다. 본 연구자는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 찰스 콜슨(Charles W. Colson)의 견해에 도움을 받았다. 그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전제하면서, 세속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사이에 존재하는 상반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가. 선명한 교회

첫 번째는 선명한 교회이다. 선명이라는 용어는 복음과 삶이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복음의소망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명처럼 여기고 전하는 교회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없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교회들은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뚜렷하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원주의 사회에 맞도록 적절하게 타협하고 중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게 보인다. 복음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성숙한 교회로 가는 중요한 과정인데,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숙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

77) Charles W. Colson and Ellen S. Vaughn, *이것이 교회이다(The Body)*, 김애진·이종철·현현숙 역 (서울: 홍성사, 2005), 301-307.

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삶도 선명해야 한다. 복음을 순결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개인의 삶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복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선명해지도록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 회개하는 교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한다(고전 4:20).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회개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회개가 아니다. 그리고 온갖 율법으로 자신을 옹아매는 것 역시 회개는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는 것'⁷⁸⁾이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설교와 소그룹 시간에 항상 회개가 빠지지 않는다. 한 주 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부끄러운 일들과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작되는 개척교회의 입장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세신자, 낙심자,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온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고 비전으로 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회개만큼 좋은 접촉점도 없다. 회개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여야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학부모, 청년 실업, 질병 등,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그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개인적인 죄들을 고백하게 된다. 그 순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감정적인 접촉점을 갖게 된다. 이에 굳이 비그리스도인이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78) Joseph Alleine, *돌이켜 회개하라(An Alarm to the Unconverted)*,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8), 26-31.

다. 순종하는 교회

앤드류 머리(Andrew Murray)는 순종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⁷⁹⁾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절반이나 일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즉 절대적인 항복은 자기부인(自期否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부인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 이것이 순종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만든 계기가 된다.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다. 사람, 물질, 사회적 지위, 교계에서의 역할, 영향력 등, 모든 부분에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 있다. 개척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척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고통스러워한다. 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다가가야 하는데, 순종이 바로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근접공간이 된다.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기에 전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라는 비전은 추상적인 멘트가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자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전체가 순종하여야 한다고 비전을 삼았는데, 공동체적인 순종은 성숙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순종이라는 가치를 목회자 개인에게 집중시켜서 목회자를 위한 순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자도 역시 이 부분을 조심해서 적용하려고 한다.

79) Andrew Murray, *완전한 순종(Absolute Surrender)*, 윤종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12-15.

라. 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일은 지극히 선교적인 용어이다. 선교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과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선교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구체적인 역할이다. 문제는 그 다리를 어떻게 놓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James Bryan Smith)은 구체적인 선교의 역할을 '타인 필요 중심적인 공동체'⁸⁰⁾라고 잘 설명하였다. 교회 자체의 성장도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교회 내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예를 들어서, 소음·주차 문제)를 교회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된다. 교회가 내부적인 지향성을 벗어나서 외부적인 지향성을 향해 나아갈 때, 참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 Support(지원하는 교회)

개척교회는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의 지원을 받는다. 일꾼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후원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재정지원을 약속 받고 개척한 교회는 아니다. 위에서 말한 개척교회의 장애물처럼, 임대료, 교회운영비, 목회자의 사례비 등이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가 타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게 되어서 발생하는 장점도 많다. 우선 타교회의 목회철학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타교회에 의지하고 싶은 독립성 결여정신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풍성한 재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본 연구자는 이에 더 나아가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본 교회의 비전으로 삼았다. 비록 재정적인 기반이 열악한 개척교회이지만, 선교사, 북한선교, 농어촌 목회자, 공립학교, 어린이집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회의 참된 본질 중 하나인 나누어주는 역

80) James Bryan Smith,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the Good and Beautiful Community)*, 전병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103-106.

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개척교회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본 연구자가 여기에서 타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교회, 개척의 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을 벗고, 하나님의 교회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한 교회로 가는 과정임을 알고 본 교회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비전 중의 하나이다.

제 3 절 교회개척의 역사 및 성장 과정

제2절에서는 복음의소망 교회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즉 목회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제3절은 일종의 역사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의소망 교회가 개척하게 된 과정, 개척하면서 겪었던 실제적인 문제들, 교회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복음의소망 교회가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역사적인 부분들이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교회개척의 과정

두려움. 교회개척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본 연구자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였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을 말린 것이 사실이다. 이미 많은 기존교회가 존재하고, 사람과 물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1970년대와 달리 이제 사람들은 개척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렵게 만들었다.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을 했다. 본 연구자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왕성교회에서 청년시절을 보냈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석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의 기간을 보냈으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동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냈다. 작지 않은 규모의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위와 같은 두려움의 요소들을 안고 개척을 결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였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생계가 큰 근심거리였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아마도 목회자 개인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많은 근심과 염려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본 연구자 개인의 선교적인 마인드와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게 때문이다. 먼저 개인의 선교적인 마인드는 본 연구자가 청년시절부터 많은 해외단기선교와 국내 농어촌선교를 통해서 얻은 경험에서 축적되었다. 본 연구자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캄보디아, 태국, 몽골, 인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일본지역에 단기선교를 다니면서 탐장과 지도 교역자로 섬기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강원과 경북의 농촌지역, 경남과 전라도의 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마인드는 서울의 개발지역을 선교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개척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마인드는 보다 성숙한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는데,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일'⁸¹⁾이다.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의지할 때, 선교적인 교회가 가능하고 말씀에 근거한 성숙한 교회가 가능한 것이다.

2. 지역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

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본 연구자가 교회개척을 위해서 건물임대장소를 알아보는 가운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많은 건물주들이 교회에 임대해주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거나, 예배시간의 소음문제로 인한 같은 건물 임차인들과의 갈등,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 건물의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물에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다. 건물주뿐 아니라, 교회주변의 이웃상가와 주민들도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송파구 문정동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개척교회는 개척의 입문에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복음의소망 교회가 입주한 송파구 문정동도 예외는 아닌데, 이전에 입주했던 교회에서 찬양과 악기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기에 교회가 또 다시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81) 이재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서울: 홍성사, 2003), 266-267.

많았다. 때문에 복음의소망 교회는 드럼이나 전자악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건물주, 건물임차인들, 이웃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더 힘든 것은 이웃주민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에 대한 도덕적인 불신들이 이웃주민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노방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목회자에 대한 거부감이 전도를 힘들게 만들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기간에 수정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지역주민들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 구축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인적자산의 부족

본 연구자가 복음의소망 교회를 개척할 때, 한 가지 목회방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우리교회로 수평이동 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낙심자나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예외이지만, 타 교회를 출석 중인 성도들은 본 교회에 오는 것을 금지하였다. 물론 수평이동을 꺼려하는 목회철학에서 나온 일종의 호기(豪氣)이지만, 이는 인적자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자산은 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길 일꾼을 의미한다. 피아노 반주, 안내, 청소, 기도자, 특송, 헌금 등등, 교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적자산이 부족하였다. 아니 거의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올바른 것이다. 이처럼 인적자산의 부족은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목회자의 영적인 고립상태를 만든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목회자가 교회전반의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보면 목회자는 쉽게 탈진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개척은 반드시 목회자와 목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적자산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소 5명 정도(목회자 가정을 포함)의 인적자산이 형성되어야 교회개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인적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자 가정 외에는 인적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척교회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인적자산이 부족한 것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이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인적자산이 없다고 개척교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마크 레버튼(Mark Labberton)의 견해와 같이, ‘일차적인 부르심을 버리고 이차적인

부르심'⁸²⁾에만 집중한 결과이다. 인적자산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개척교회의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목회자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차적인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인적자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인적자산이 요구되는지를 목회자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개척교회는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미 정착된 교회의 인적자산을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최소한 3개월은 목회자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문제들(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 양육, 전도)을 정해놓고 동역자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개척교회로 부르신 일차적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

다. 재정의 부족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자가 개척을 위해서 많은 선배 목회자들에게 교회개척을 상의했을 때에 대부분의 선배 목회자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한가'를 질문했었다. 처음에는 개척하는 목회자에게 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 씩씩하기도 했는데, 막상 개척을 하는 현장에 들어오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공감된다. 재정은 개척현장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본 연구자가 개척한 송파구 문정동 지역은 건물임대료가 저렴한 편이 아니다. 더욱이 도시개발지역이라는 개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이기에 타 지역보다 임대료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0월 현재, 개척을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선호하는 지역은 당연히 도시개발지역이다. 그렇지 않은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교회마저도 이미 교회가 포화상태이기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수평이동현상을 부추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개척은 재정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가건물이면 지하인지 아니면 2층 이상인지,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강대상 등 집기들은 중고를 구입할 것인지, 새 것으로 구입할지, 음향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인테리어는 얼마를 예상하는지,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시작할 것인지 등등, 재정의 부족은 당연히 발생한다. 그

82) Mark Labberton, *제일소명(Called)*,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103-105. 여기서 말하는 일차적인 부르심은 일차적인 부르심을 전제로 한 교회사역, 직장사역, 봉사사역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리고 그 재정부족은 장애물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에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 목회자 개인의 역량부족

개척교회를 하다보면 원치 않지만 목회자 간의 비교를 당하게 된다. 목양방식, 설교 스타일, 목회자의 학력, 개인의 재정상태, 교인 수, 교회의 크기 등, 많은 비교대상들이 목회자 앞에 놓여 있다. 물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개척교회의 실제적인 성패는 사실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이 결정할 때가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회자 개인의 역량은 조금은 다른 점이다. 복음의소망 교회를 개척하면서 본 연구자를 가장 힘들게 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목회자 스스로가 개척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역량의 문제였다. 개척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목회자의 역량’⁸³⁾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늘 가슴을 짓눌렀다. 즉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의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역량’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가 제시하는 목회자의 자아성찰이다. 개척교회의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개척교회를 하다보면 목회자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 개척하는 상황에 쫓기다보면 스스로의 경건시간을 놓치게 되거나, 개척교회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열등감, 허무감, 냉소주의에 빠질 위험이 생긴다. 개척교회의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목회자에게 남는다.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때로 타교회의 목회자들, 특히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한 은근한 질투심이 유발되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적인 좌절감이나 시기심으로 인해서 설교 또는 목양에서 부정적인 언행(言行)이 나올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향한 마음을 자신에게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돌아보는 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하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역량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개인

83) Richard Baxter, *참 목자상(The Reformed Pastor)*,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35-62.

경건시간을 매일 확보하여서 새벽과 저녁시간에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3. 교회의 역사와 현황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역사는 결단, 위기, 희망과 더불어서 드라마처럼 나타난다’⁸⁴⁾고 말했다. 그는 사건들이 있는 구체적인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기독교가 구체적 인간들이 그들의 멸망 또는 구원을 위해 역사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복음의소망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본 교회가 성숙한 교회를 소망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소망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이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는 목회자의 결단, 교회를 개척하면서 실제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 미래의 성숙과 성장에 달린 교회의 희망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된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성숙한 교회를 향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교회개척은 개척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지역, 특히 문정법조단지, 송파(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는 1년 혹은 2년 뒤에 완공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고단한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본 교회의 짧은 역사이다. 짧은 역사이지만, 목회자 개인에는 때로는 눈물과 근심이 가득한 시간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부분을 한 지역교회의 역사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신앙의 간증보다는 학문적&실천적인 논증이기에 추상적인 과정들은 생략하고 개척의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 2013년 3월10일: 개척을 위해서 한주원 목사의 가정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함
- 2013년 8월25일: 개척준비를 위해서 개포동교회 사임

84) Paul Ricoeur, *역사와 진리(History and Truth)*, 박건택 역. 서울: 솔로몬, 2002. 98-103.

- 2013년 9월-10월: 교회 현장 리서치
- 2013년 11월3일: 한주원 목사의 가정(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16동 308호)에서 복음의소망 교회 첫 예배를 드리다
- 2013년 12월-2014년 3월: 개척할 장소를 리서치
- 2014년 4월28일: 송파구 문정동 57-8, 2층을 계약하다
- 2014년 4월29일-5월16일: 리모델링 공사
- 2014년 5월18일: 복음의소망 교회 설립예배를 드리다
- 2014년 6월1일: 한주원 목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다
- 2014년 7월6일 주일부터 주일예배를 1(11시),2부(3시)로 나누어서 드리다
- 2014년 9월1일: C국에서 사역하는 권정훈 선교사를 교회 1호 협력선교사로 돕기 시작하다
- 2014년 10월1일: 북한선교의 일환으로 모퉁이돌 선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하다
- 2014년 11월23일: 복음의소망 교회 첫 태신자전도잔치를 시작하다

복음의소망 교회의 현황은 주로 성도의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떠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는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교회는 2014년 8월 현재, 노년1명, 장년25명, 청소년(중학교1년)2명, 초등부 8명(1학년 3명, 3학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례교인은 남자가 6명, 여자가 12명이고,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남자가 3명, 여자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정이 가정별로 출석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구성원은 문정동에 직장이 있으신 분, 친인척, 목회자 자녀가 학업 중인 학교의 학부모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성원들을 영적인 상태로 분석을 해 보면, (유초등부를 제외하고)낙심자가 14명이고, 기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던 신앙인들이 10명이고, 나머지 2명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다.

4. 교회의 특징

본 연구자는 복음의소망 교회의 특징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 성육신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전통적 교회와 이머징 교회 모두 상황화의 신학에서 시작되었다. 상황화는 서구적인 형태의 교회가 문화와 언어의 지역적인 상

황에 맞도록 잘 적응하게 하는 유용한 선교적 방법이다. 상황화된 개척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에 매여서 목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상황화보다는 '성육신화'⁸⁵⁾되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의 교회는 세계의 모든 문화들 속에 존재, 성장하고 있기에 교회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도시적인 혹은 농촌적인 형태들을 갖추어서 교회의 문화적 패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육신화는 조직교회보다는 유기적인 교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복음의소망 교회 역시 조직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척하게 될 교회의 미래는 교회론과 선교론적인 원리와 제안의 개혁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복음의소망 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소망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찾는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목회운영계획을 세운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본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이런 움직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본 연구자가 본 교회의 이름을 '복음의소망'이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자는 복음의소망 교회를 설립할 때, 본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를 세우고자 다짐하였다. 전통적 교회의 가치를 사랑하면서도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형식과 틀, 또는 성육신화되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정확한 정체성 확립이었다.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복음이 성경계시를 만든 것이다. D. A. 카슨(Carson)의 견해처럼, '성경자체는 복음이 아니지만, 모든 성경은 복음과 관련이 있고 복음은 성경의 존재이유'⁸⁶⁾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상당히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85) Bolfgang Simson, *가정교회*, 2004, 306-307.

86) D. A. Carson외, *복음이 핵심이다(The Gospel as Center)*, 최요한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4), 27.

복음의소망 교회의 모든 사역이 실제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사역이 되길 노력하고 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의 소망이 되기에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에 평안을 준다. 따라서 본 교회의 특징은 본 교회의 이름인 '복음의소망'에 압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공동체 형성은 복음의 전파에 힘쓰게 되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의소망 교회의 목회는 실제적이고 현장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에 오라'는 것보다는 '그곳이 교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사역이 많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시간에는 지역의 직장인들과 만남시간을 갖고, 토요일 오전에는 학부모들을 만나는 시간, 토요일 오후에는 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시간, 주일오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도시개발지역이라는 위치상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되도록 사람들(특히 비그리스도인)과의 근접공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교회가 위치한 예배당 장소 역시 지역주민들과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도록 개방하여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개념에서 벗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교회 구성원의 특징 상,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관계로 교회성도들을 주중에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교회성도들은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에 만나는 일이 많고,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성도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성도들보다는 비그리스도인의 접촉시간을 많이 확보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소망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제 6 장

복음의소망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전략

제5장에서는 복음의소망 교회 개척의 실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지나온 하나의 발자취와 같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는 역사신학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6장은 선교신학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과 성장을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이다. 아무리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이 좋다고 해도, 교회자체가 생존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박한 방법론으로 생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실제는 어떤 모습인가. 본 연구자는 아래의 기술들을 통해서 나누고자 한다. 미리 언급하자면, 아래의 논증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1 절 목회적 과제

목회적인 과제는 담임목사 스스로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5장 제2절에서 언급한 목회철학, 집중사역, 비전과의 차이점은, 제5장에서는 교회의 전반적인 틀을 형성해가는 외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논증하는 것은 교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의 외부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다.

1. 평신도 사역자 양육

본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 양육은 '믿음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목표로 삼는다. 단순히 교회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목회자의 조력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엘리트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믿음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이다.

이같은 양육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우선 성경서원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지식부터 쌓아나가고 있다. 본 교회의 성도들이 초신자 또는 낙심자가 많은 관계로 성경의 기본지식을 모르는 경우에 많기에,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성경서원은 주일오후 1시30분부터 진행하는데, 점심식사 후에 조금은 피곤한 시간이기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 질문과 대화방식으로 진행한다. 물론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성경과 성도들의 삶에 다리를 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서원시간은 맞벌이 부부의 특성 상 주중에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한데, 성경계시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접촉점 또는 괴리감들을 만나고 채움으로 존 스토틀(John Stott)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할 4가지 모습'⁸⁷⁾을 향해 나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즉 그분의 교회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봉사의 직분인 디아코니아를 온전히 감당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증언하는 사명인 마르투리아를 삶에서 실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을 다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나누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와 일방적인 강의식 훈련보다는 세상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전인격적인 사역자가 훈련될 수 있음을 목회철학으로 삼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가정 사역

복음의소망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지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이다. 주중에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오전과 오후시간에는 지역 대부분이 공동화(空同化) 현상으로 지역 자체가 한산한 편이다.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전도할 수 있는

87) John Stott, *한 백성: 변하지 않는 교회의 특권 4가지(One People)*, 정지영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157-158.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전에는 교회 인근의 회사 직장인들과 노인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의소망 교회의 가정사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사역이 요구되고 있다. 2014년 12월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건강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그들이 갖는 '감정적인 필요들'⁸⁸⁾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맞벌이 부부가 갖는 감정적인 필요들은 때로 설교의 다리역할을 하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인정한다. '부부가 서로 함께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자. 배우자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자. 직장 얘기를 들어주자. 성(性)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삼가자. 서로의 기대치를 너무 올리지 말자.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맞벌이라는 내세우지도, 감추지도 말자', 이것은 맞벌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들은 주일설교 시간에 맞벌이 부부들의 감정적 필요를 만져주는 역할을 한다.

가정 세미나뿐 아니라 가정사역에 관련된 도서를 교회에서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금요일 소그룹 시간에서 각 가정의 문제와 아픔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가정사역이 교회의 또 다른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목회방침을 세웠다. 풀러신학교 교수 엄예선은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을 전통적인 목회에서 바라볼 때, 익숙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사역임을 인정한다.⁸⁹⁾ 때문에 가부장적인 목회구조를 가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자&파트너로 대우하는)가정사역에 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이런 부담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사역을 따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가정생활에 관한 주제들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도 가정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홍보를 하지 않고, 도서읽기 또는 소그룹 시간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정에 관한 주제를 나누도록 한다. 본 연구자는 가정사역을 복음의소망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한 방법론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본 교회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문정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경험들을 선교의 중요한 접촉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88) 전경일, *맞벌이 부부로 산다는 것* (서울: 다산북스, 2005), 174-175.

89)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522.

3. 선교와 전도사역

본 연구자가 복음의소망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목회적 과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효과적인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효과적인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의 증인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자'⁹⁰⁾는 것이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세상과의 긴장감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고 회심시킬 책임이 있기에 세상을 떠나고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본 교회는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자 목표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숙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의소망 교회는 교회의 운영과 목표 자체가 선교와 전도사역에 힘을 쏟는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0월 현재)아직은 개척초기이지만, 2014년 9월부터 중국에서 사역하는 권정훈 선교사를 후원하고, 11월부터는 북한선교단체 모퉁이 돌 선교회를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장지동에 위치한 란키즈라는 민간보육시설을 후원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이고 감정적인 필요들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4. 문화사역

사실 이 부분은 목회적인 과제로 다루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문화는 영역이 다양하고 교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교회의 주요한 목회과제로 여긴다는 것이 많은 고민이 되었다. 물론 문화사역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접촉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문화사역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기독교에 관한 성경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문화사역이 염려스러운 이유는 문화사역을 목회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신학적인 근거를 찾지 못

90) Charles Colson, *이것이 교회다*, 529-549.

했기 때문이다. 왜 문화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본 연구자에게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문화변혁이론’⁹¹⁾은 문화사역을 실제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가 말하는 문화변혁이론은 문화를 변혁해 가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 곧 본래는 선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타락하고 왜곡된 상태로 변질된 인간의 모든 일을 거둬나게 하고 다시 활성화하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분’이다. 이 말은 창조사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문화에 대한 거대담론(談論)을 생각하게 만든다.

본 교회가 지향하는 영화설교, 연주회, 기독교 연극과 뮤지컬 등은 교회가 문화 자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자체를 변혁하는 것에 힘쓰고 성경적인 문화전파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다. 때로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할 수 있다는 희망은 문화사역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본 연구자는 동남권 유통단지 내의 소극장을 활용하여서 ‘영화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하게 된 이유는 영화가 갖는 대중적인 근접공간 때문이다. 로버트 존스톤(Robert K. Johnston)은 영화가 갖는 힘을 이렇게 말한다. ‘영화는 우리를 삶에 더 많이 노출시키며, 삶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제공한다. 삶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가치관과 이미지가 형성되며, 영화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돕는다’⁹²⁾, 이 말은 영화가 우리(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를 해석하고 우리에게 의해 해석되는 삶의 이야기들이라는 의미다. 본 연구자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만나고, 그 만남(접촉점)을 성경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영화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매주 마지막 토요일 오후), 소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재해석해서 접촉점으로 삼고 있다. 문화사역은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영화뿐 아니라, 기독교 연극과 연주회 등을 통해서 복음이 약속하고 가능케 하는 모든 영역을 전하고자 한다.

91)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서울: IVP, 2013), 334.

92) Robert K. Johnston, *영화와 영성(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서울: IVP, 2013), 28.

제 2 절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

교회성장은 교회의 자립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사실 교회의 자립은 전략보다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편이 지혜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을 이루어주셔야 자립할 수 있다. 즉, 사람을 보내주셔야 부흥이 되고, 재정을 채워주셔야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야 모든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많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중요한데, 아래의 내용은 그 반응에 관한 내용이다.

1. 명확한 소명의식

명확한 소명의식은 목회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도시개발지역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개척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소명의식이 명확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회성장을 위한 소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가, 성도들과 어떻게 소명을 나눌 것인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현실적인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난제(難題)가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많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명의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개척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임목회자의 소명의식이 선명해야 한다.

개척교회는 생존 자체가 늘 걱정거리이다. 2014년 현재, 성장을 멈춰버린 한국교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의 개척은 교회성장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도가 어려운 현실, (본 교회와 같은 일반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 생활비가 없는 목회자 가정,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와도 몇 주 뒤에 교회를 떠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은 개척교회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온다고 보는데, 그 때에 명확한 소명의식은 교회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개척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어야 전도를 하고,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전파에 힘을 낼 수 있다. 목회자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께 하는 성도들도 교회의 지속성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개척에 동참하게 된

다. 그리고 소명의식이 분명할수록 교회 내·외부 성장전략도 구체화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성장전략

가. 성경서원

성경서원은 교회성장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구령의 열정, 증인으로서의 삶, 선교적 교회에 관한 내용을 나누게 된다. 교재는 특별하게 없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본 연구자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작해서 성도들과 대화방식으로 진행한다. 한 과정을 마치는 시간은 12주이다. 12주로 결정한 이유는 너무 짧거나 길면 성경에 관한 몰입도가 저하될 것을 염려하여서 3개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경서원 시간은 주일오후 1시30분부터 2시40분까지 진행하고 있다. 성경서원은 2015년까지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약 살펴보기(12주): 2014년 8월3일~2014년 10월19일
- 신약 살펴보기(12주): 2014년 12월7일~2015년 2월22일
- 하나님 나라(12주): 2015년 4월5일~2015년 6월21일
- 선교적 교회(전도와 구령의 열정, 12주): 2015년 8월2일~2015년 10월25일
- 그리스도인 가정(12주): 2015년 12월6일~2016년 2월28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구약과 신약에 관한 내용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는 뒤에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나누는 계획이다. 성경 기본지식을 쌓은 후에 그 지식이 삶에 연결되도록 나름대로 스케줄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성경서원을 약 3년 정도를 진행한 후에 (이 과정을 이수한 성도들에게는)제자훈련 방식으로 양육프로그램을 세울 예정이다. 그리고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과정을 밟게 됨으로 성숙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본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길 기대하고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많은 새 생명이

잉태되길 또한 바라고 있다.

나. 예배

예배가 교회성장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예배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고 섬길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예배가 교회성장의 중요한 내부전략이라고 판단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는 '일방적'인 성향을 갖는다. 소위 본 예배(또는 대예배)라고 부르는 주일 오전 11시(또는 9시)를 시작으로 오후예배, 저녁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등등, 많은 정기적인 예배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든, 아니면 스스로 찾아오길' 바란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해진 예배규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연구자 역시 존중하고 그 시간들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교회 내부의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예배의 속성이 내 자신(Self)이 아닌 다른 존재(Others)⁹³를 향한다는 기본전제 때문이다. 오브리 멀퍼스(Aubrey Malphurs)는 마태복음 20:27절('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현대 교회가 섬기는 모습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 '섬기는 종'의 모습이 예배에 나타날 때에 예배는 폐쇄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열려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다. 다른 존재 중에서도 이웃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문제, 주차문제, 주일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앰프시설의 최소화, 문정역 공용주차장 이용 등)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 이외에도 주일예배 밤 9시 예배를 신설하여서 맞벌이 부부의 특성이 많은 문정동 지역의 이웃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하였다. 맞벌이

93) Aubrey Malphurs, *A New Kind of Church: Understanding Models of Ministry for the 21st Century* (Grands Rapids: Baker Books, 2007), 131.

부부는 주말과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직장출근을 하거나 피곤해서 아침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밤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관한 새로운 생각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변수는 있다. 월요일 아침에 대한 부담이나 주일 늦은 시간까지 쉼겨야 한다는 부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주일아침 11시에 나와서 힘들어하거나 아예 오전시간의 예배참석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밤9시 예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밤 9시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는데, 천주교(정확하게 말하면 수서동 성당)에 시행하는 밤 9시에 많은 인원들이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때문에 복음의소망 교회는 2015년 1월부터 주일 밤 9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주일예배 외에도 새벽예배 시간에는 간단한 아침식사(빵과 우유)를 대접함으로 새벽예배 후에 곧바로 직장에 출근하는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예배가 좋은 교회성장의 내부전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 전도방식

(1) 부침개&호떡 전도

복음의소망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동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이다. 문정법조단지 공사,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지 공사, 위례(송파)신도시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 등이 많이 일어난다. 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문정동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어서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도 많지만)도시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도시개발에서 제외된 이웃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본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부침개&호떡 전도(이하 부호전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부침개와 호떡을 구워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일종의 근접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식당이 많지 않은 주거지역이기에 이 같은 전도방식에 관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호전도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본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응도가 높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침개와 호떡을 굽는 일만 하면 되고, 부침개와 호떡을 나누어주고 복음제시를 하는 것은 본 연구자와 사모가 담당한다.

때문에 초신자와 낙심자로 대부분 구성된 본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부호전도는 이웃주민들에게 본 교회가 베풀어주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감으로 지역교회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된다.

(2) 눈높이 전도

눈높이 전도는 맞춤전도라고도 할 수 있다. 맞춤전도는 세대를 통합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고, 남녀로 구분해서도 전도를 한다. 복음의소망 교회는 1년에 한 번 태신자 전도집회(11월 넷째 주)를 갖는다. 태신자 전도집회는 통합적인 전도의 날이다. 이 날은 비그리스도인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날이기에 눈높이 전도라고 보기에에는 어려움이 있다. 태신자 전도집회는 눈높이 전도를 통해서 오기 힘든 가족과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는 날이다. 본 교회는 태신자 전도집회를 제외하고는 전도집회를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눈높이 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교회의 전도특징은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간다는 점이다. 어린이 전도는 후원하는 란키즈에서, 초등부 전도는 문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청소년 전도는 문덕 고등학교에서, 청년전도는 가든파이프(동남권유통단지)의 소극장에서 진행하고, 장년이상은 교회에서 각각 모임을 갖는다. 각각의 모임은 전도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 단순히 '모임(Meet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접공간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관계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다음으로 친구, 직장동료, 이웃, 낯선 사람 등, 내가 속한 관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적인 필요(때로는 감정적&경제적인 필요)를 채움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관계전도'⁹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소망 교회의 관계전도는

94) W. Oscar Thompson Jr., Carolyn T. Ritzman and Claude V. King, *관계중심전도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Seven Stages for Making Disciples)*, 이혜림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28.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맞벌이 부부의 특성상, 주중에는 친정과 시댁에 자주 가지 못하는 여건이나 늦게 퇴근하는 관계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기에 주로 가족구원을 향한 전도의 열망이 있다. 개척교회의 특성상 관계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전도가 본 교회 성장의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 교회의 관계전도가 가족중심의 전도만은 아니다. 이웃전도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미용실의 원장을 전도하여서 그 성도가 본 교회에 출석이 되었고, 그 성도를 중심으로 미용실이 중요한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다. 본 연구자도 자주 그곳에 가서 이웃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물티슈와 같은 미용에 관련된 전도물품들을 비치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교회 인근 카페 주인을 전도하여서 그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는 근접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관계전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목회자가 먼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관계의 영역이 점차 넓혀질 수 있다. 때문에 관계전도는 성숙한 교회를 향한 개척교회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라. 선교

앨런 넬슨(Alan Nelson)은 ‘팀 사역을 통한 동반 관계가 지역교회를 살리는 효율적인 결정’⁹⁵⁾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앨런 넬슨(Alan Nelson)은 목회자 중심의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목회자 중심교회는 성도들의 동력이 목회자를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되기 때문에 선교보다는 목회의 효율성에만 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팀 사역을 통한 동반관계는 목회자의 개인적인 부담감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숨겨진 은사를 발견하게 만든다. 본 연구자는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성장역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선교론적인 측면을 넘어서 성도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만인제사장’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복음의소망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개척을 하였다. 그리고 선교는 목회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전 성도의

95) Alan E. Nelson, *Me to We: A Pastor's Discovery of The Power of Partnership* (Loveland, CO.: Group Pub, 2007), 102~104.

은사가 발현되는 목회 동반자 사명이라고 판단한다. 본 교회의 선교전략과 사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내부적인 단기선교이고 두 번째는 지역과의 연합사역이다. 내부적인 단기선교가 성장의 이유가 되는 것은 단기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본 교회는 2015년 중국을 시작으로 매해 두 번 정도 해외단기선교를 갈 예정인데, 팀원모집과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갖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청년, 장년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공동으로 감당할 수 있다. 지역과의 연합사역은 선교의 역량을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는 사역으로서 주로 해외봉사의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송파구가 자매결연 한 도시 중에서 봉사가 요구되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을 방문함에 있어서 교회성도뿐 아니라, 송파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다. (본 교회는 2015년 10월에 카자흐스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외봉사를 예정하고 있다) 해외봉사는 기독교 색채는 드러내지 않고 지역주민 공동으로 해외봉사프로그램(집짓기, 의료, 이미용 등)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선교접촉점을 확보해나간다. 본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송파구에서 벗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 진정성의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접촉될 때에 본 교회뿐 아니라 송파구의 지역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교회의외부 성장전략

가. 문화접촉점

문화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 문화생활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통합해서 예술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문화접촉점은 여러 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복음의소망 교회는 송파구 문정동의 특성을 따라서 영유아·초·청소년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도시개발지역인 송파구 문정동 일대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편이다. 본 교회도 교회에 출석하는 5가정이 모두 맞벌이 부부일 정도로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의 양육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접촉점도 맞벌이 부부의 실제적인 필요에 맞추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본 교회는 송파 어린이 문화회관(송파구 오금동에 위치)과의 협력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문화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회관 내에 있는 소극장에서 영화상영, 기독교 뮤지컬 공연(기독교 뮤지컬 공연단과의 협력), 어린이 연주회, 기독교 미술전 등을 개최해서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기독교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든파이프(동남권 유통단지) 내의 소극장을 월1회 임대해서 영화설교를 진행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청년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 아줌마 축제

위에서 살펴본 문화접촉점과 유사할 수 있지만, 아줌마 축제는 문화접촉점에서 소외될 수 있는 30대 이상의 가정주부를 목표로 삼는 성장전략이다. 이는 본 교회의 외부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아줌마 축제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평화교회(이동현 목사 시무)에서 벤치마킹 하였는데, 이동현 목사를 통해서 아줌마 축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정위기와 해체를 막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판단하였다.⁹⁶⁾ 아줌마 축제의 가치는 ‘아줌마 선언’이라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꿀 줄 알아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 받는 행복한 여성이 되도록 언제나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우리는 건강한 여성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셋째, 우리는 이 지역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성결하고 건전한 문화를 세워 나가는데 앞장선다. 넷째,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국력의 기초를 다지는 일임을 알아 지혜와 능력을 키워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힘쓴다.’, 이처럼 아줌마 선언은 아줌마 축제의 취지와 가치를 나, 가정, 지역사회, 국가발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독려한다.

물론 개척한지 몇 개월이 되지 않는 개척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예산과 동역자의

96) 평화교회, “아줌마축제”, Online: <http://www.phch84.org/ministry/ministry09.asp>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줌마 축제는 많은 예산과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가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선교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선교전략을 ‘교회의 사회활동’⁹⁷⁾이라고 판단하는데, 교회가 교회내부적인 모습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에 접근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의 회수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사회활동은 조직적인 모습보다는 유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감정적&경제적&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필요와 결핍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모두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연대감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활동을 교회가 주관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주민들을 향한 목양의 기대감을 갖게 되고, 지역주민들 역시 교회의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목양을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아줌마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본 교회는 아줌마 축제를 2016년 5월(장소: 송파구체육문화회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아줌마(가정주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이 지역과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회의 사회활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폭넓은 방향성이라고 확신한다.

다. 협동조합 활용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송파구는 서울에서 기독교 단체가 가장 많은 곳이다. 때문에 전통적인 전도방식으로 낙심자나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개발지역인 송파구 문정지구는 개발지역의 특성 상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이다. 이는 이 지역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기업의 일종인 마을 협동조합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때마침 본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동 57-8(문정빌딩) 6층에는 송파구 사회적 기업경제허브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난 6월1일 주일예배 시간에 센

97) Gregory P. Leffel, *Faith Seeking Action: Mission, Social Movement, and the Church in Motion*.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7), 48.

터장으로 근무하는 김태현 집사님(사랑의교회)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후에 교회가 협동조합을 통한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협동조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협동조합이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협동조합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협회’⁹⁸⁾이다. 이 같은 정의는 협동조합이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를 제공하기에 기독교 가치관과 잘 어울리지만 기독교 운동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협동조합에 관해서 고민할 때, 협동조합운동이 과연 기독교적인 가치와 선교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점을 협동조합이 제공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그리고 과연 협동조합이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성경적인 근거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본 연구자는 협동조합이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체 자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다. 왜곡된 자본주의에 의해서 피폐해진 영혼들에게 협동조합은 자연스럽게 성경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관해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정재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협동조합이 갖는 성서적 의미는 첫째로 창조질서의 회복과 생명가치의 보존이라는 기독교의 가치와 이어진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모든 자연의 창조물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 창조질서가 파괴되고 급기야는 심각한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계를 본래의 창조질서대로 회복하고 생명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협동조합 운동이다. 둘째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의 실현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지배받아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셋째는 온전한 인간회복을 이루어가는 회년 사상이다. 회년은 자유와 해방의 안식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의 온전한 회복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고야와 과부’로 표현되는

98)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Online: <http://ica.coop/en/what-co-operative>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성서를 관통하는 실천적인 정서이며 협동조합 정신은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⁹⁹⁾

물론 위와 같은 정재영의 견해는 인간관계를 회복해가는 공동체 정신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상호존중과 공존을 목표로 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협동조합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 연구자는 협동조합에 관한 막연한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협동조합은 일종의 비즈니스 선교이기에 비즈니스를 통한 접촉점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교단과 교회 내의 성도들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시작한다는 초기의 정신과 취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은 교회의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선교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개인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해방과 변혁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더욱이 복음의소망 교회는 도시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개발지역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적인 모습만 고집해서는 선교적인 접촉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본 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통한 선교적인 접촉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협동조합이 선교적인 접촉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실제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협동조합은 영리추구를 통해서 자본과 노동이 성경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영리추구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접촉점에 대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말과도 같다. 물론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교회의부성장전략이라는

99) 정재영, “협동조합운동의 기독교적 가치와 선교적 가능성,” 기독교 사상, 통권 제655호, 2013년 7월호, 44-45.

상위개념을 놓고 본다면, 영리추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리추구는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비전의 발견, 조직, 현실의 점검, 조합원 구성, 지속적인 운영의 여부 등’¹⁰⁰⁾은 협동조합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전문가(송파구청 사회적 기업 후원센터, 법률자문가, 회계자문가, 목회자)에게 견해를 구한 바, 송파구 문정지구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자녀양육에 관한 관심이 큰 문정지구는 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편인데, 맞벌이 부부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들의 양육문제이다. 자녀양육에 관한 강의 프로그램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고, 송파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며,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송파구청)에서 평일저녁 또는 주말오후를 이용해서 부모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 그 강의를 통해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양육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면서 복음에 관한 접촉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본 연구자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실무적인 영역이다. 목회자로서 실무적인 영역까지 감당하기에는 시간적&정신적&영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목회자가 조합장이 되어서는 곤란할 듯하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서 은행원을 선별해서 조합장의 직분을 맡길 예정이다. 성도가 조합장을 맡게 되는 경우에 목회자로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선교적인 접촉점으로서의 통제기능을 상실할 것이 사실 우려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장점 중 하나인 ‘1인 1투표 방식’¹⁰¹⁾이 때로는 목회자의 통제 아래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협동조합이 갖는 1인 1투표라는 독특한 의결권과 선거권이다. 교회가 운영하더라도 담임목사 역시 조합원의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선교의 접촉점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원한다면, 선교적인 마인드를 지닌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선별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교회내부가 아니라 교회외부 성장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은 교회 내의 한 조직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접촉점이다. 이 부분에서 본 연구자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벌어질 때, 이를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100) Andrew McLeod,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Holy Cooperation)*, 홍병룡, (서울: 아바서원, 2013), 193-199.

101) 이대중, *협동조합, 참 쉽다* (서울: 푸른지식, 2013), 116.

협동조합이다. ‘공동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영리추구가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끈다. 공동성은 공동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공동행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유하는데, 첫째, 모든 참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자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각의 참여자는 공동행동의 주체이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 셋째, 참여자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행동은 공동성의 주체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상호적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주체는 조합원 전체가 된다.¹⁰²⁾

라. 관공서 후원

2013년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에서 사는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¹⁰³⁾를 하였다. ‘송파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위는 주거환경 32.1퍼센트, 2위는 도로교통 여건 18.9퍼센트, 복지서비스 17.3퍼센트,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13.4퍼센트, 교육 9.3퍼센트’의 순서였다. 본 연구자가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송파구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 아니다. 물론 도시개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과 도로교통, 그리고 복지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정보는 목회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작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사항은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관공서의 영향력이다. 관공서는 늘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자는 지역교회가 관공서의 이러한 점, 즉 지역주민들의 감정적 필요, 신체적 필요, 경제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회는 영적인 필요만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면을 풀어주는 전인격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관공서 후원은 교회의 사회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참여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관공서 후원은 지역사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중요한 ‘접촉점’¹⁰⁴⁾ 역할을 한다. 관공서 후원과 같은 접촉점은 세 가지의 기본

102) Stefano Zamagni and Vera Zamagni,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La Cooperazione)*, 송성호 역 (서울: 북돋움, 2013), 77-78.

103) 송파구, “2013년 구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Online: https://www.songpa.go.kr/ebookreal_org/pdf/SurveyResults2013.pdf

104) Tim Chester and Steve Timmis, *교회다움(Total Church)*, 김경아 역. (서울: IVP, 2012),

전제가 있다. 첫째는 선교와 사회적 행동은 별개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지역 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동이 곧바로 복음전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둘째, 선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사회적인 행동은 분명한 기준제시가 필요한데, 복음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에 관해서 말해주어야 한다. 셋째, 선교와 사회적인 행동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교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관계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관계에서 선교행위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관공서를 후원함으로써 관공서를 중요한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소망 교회는 송파구청 사회복지과에게 (복음의소망 교회에 인접한)문정동과 장지동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장지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란키즈’¹⁰⁵⁾를 운영하는 송미화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란키즈’를 후원하기로 하였다. ‘란키즈’는 장지동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이다. 송미화 원장님은 보육료 상한제를 비롯한 각종 정부 정책에 걸려서 어린이를 위한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였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후원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 외에도 아이들을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상의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린이집 외에도 장애인 복지회관, 노인요양센터, 취업센터 등, 관공서가 관심을 갖는 모든 영역에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후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성장을 위한 외부활동이기는 하지만, 외부보다는 오히려 교회내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킴으로 보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알게 되었다.

109-110.

105) 이계경, *가슴으로 안은 송파*, (서울: 여성신문사, 2012), 46-47.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도시개발지역에서 효과적인 개척교회에 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개척교회를 이루기 위한 이론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목회의 목표로 삼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선교적인 교회를 목회현장으로 이해하였다.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였고 실천적인 방향성도 고민해보았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융합(融合)이다. 성경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융합할 것인가. 그 해답이 복음의소망 교회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해답은 '교회의 공동체성'¹⁰⁶⁾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귀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모습으로, 선교적인 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은데, 지역에 거주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지역에 위치한 카페에서 토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일, 미장원에서 갖는 엄마들의 금요모임, 소극장에서 만나는 청년들과의 영화모임, 보육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유아들과의 동화모임 등, 복음의소망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 공감대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점으로 찾아간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일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이 같은 모습들이 지속된다보면, 성숙한 교회의 이론과 선교적인 교회의 실체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을 것이

106) 김영선, *참된 교회-현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400-404.

다.

도시개발지역은 복잡한 변수가 많은 곳이다. 국가적인 계획으로 도시가 개발되기에 생활여건의 향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시개발지역을 향한 우려와 현실적인 문제들¹⁰⁷⁾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복음의소망 교회가 위치한 송파구 문정동 지역은 한층 혼란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위례(송파)신도시개발, 동남권유통단지 개발, 문정법조단지 개발과 같은 3곳의 동시다발적인 개발은 경제적·문화적인 역동성을 가져오지만, 때로는 도시개발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판단할 때에 도시개발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읍·면·리와 같은 지역에서도 교회의 숫자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지역은 교회개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도시개발지역에서 교회개척 가능성을 보았다. 특히 송파구 문정지구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개발지역에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측면을 넘어서 (교회가)지역사회의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역사회가 원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선교적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고 노력하였다. 선교적인 교회는 현재 교회가 위치한 장소를 선교지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지 않으면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교회개척은 쉽지 않다. 도시개발지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다.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개발뿐 아니라, 자신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을 원한다. 따라서 이곳에 개척되는 교회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도시개발지역에 눈높이를 맞추라는 말을 교회건물, 인테리어, 음향 등을 과도하게 투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개척되는 교회(엄밀히 말하면 개척하는 목회자)는 재정의 한계가 있다.

107) 김정민, *도시개발, 길을 잃다 : 대형개발에 가려진 진실과 실패한 도시성형의 책임을 묻다* (서울: 시공사, 2011), 7-11.

무리하게 금융권이나 지인에게 빚을 지고 시작하면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눈높이는 그곳에 사는 또는 살아갈 영혼들의 감정적·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자가 복음의소망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의 교훈과 발전제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서술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교훈은 발전으로 제안되어야 하고, 발전은 교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중적인 논리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1세기의 교회는 형식적인 틀을 벗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물론 교회가 갖는 전통적(성례전)이고 긍정적인 가치(복음)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는 작은 단위로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교, 전도, 예배, 문화, 지역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를 교회라는 큰 공동체의 틀이 아니라 교회 내의 작은 공동체로 변환시켜서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소그룹 중심의 교회’¹⁰⁸⁾라고 부르고 싶다. 소그룹 중심은 그룹 자체가 배가운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교회의 리더십을 극대화한다. 또한 소그룹 중심은 교회 내의 교제를 가능케 함으로 관계중심적인 전도를 가능케 하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성장을 가능케 함으로 상호영향·상호섬김·상호치유를 통해서 영적성장을 이루게 한다. 본 연구자가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단순히 작은 단위로 나뉘어서 성경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특히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 주민들의 요구를 지역교회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행정서비스, 환경개선, 도로, 교육, 안전, 복지과 같은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교회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목양을 포기하여야 할 정도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모습을 버리고 새

108) 강정원, *뒷문 없는 교회 이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99-100.

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복지센터, 도서관, 기업, 스포츠 시설운영, 카페영업 등을 감당하면서 목양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본 연구자는 도시개발 지역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혼란스러웠다.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주로 채우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본 교회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를 선교지로 이해하고 사역하지만, 사역의 우선순위문제는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때문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소그룹 중심교회는 교회 내의 교회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감당하면서도 교회의 핵심역량인 선교지로서의 접근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에 본 교회는 나름대로의 발전제안을 준비하는데, 문화사역 교회, 주일학교 교회, 경제·사회교회, 국내·해외선교 교회로 교회조직을 분리하여서 성도들의 은사에 맞추어서 각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는 이러한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많이 개척되길 기도하면서 본 연구를 마치도록 한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강정원. *뒷문 없는 교회 이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김경민. *도시개발, 길을 잃다 : 대형개발에 가려진 진실과 실패한 도시성형의 책임을 묻다*. 서울: 시공사, 2011.
- 김길성. “교회의 속성과 표지.” *신학지남*. 제76권, 통권 제300호, 2009년 가을호.
- 김상현. *전도중심교회로 바꾸라 : 전통교회를 전도중심교회로 바꾸는 전략과 실천*. 서울: 두란노, 2013.
-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 김세운·김희권·정현구. *하나님 나라 복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 김송식. *교회개혁전략*. 서울: 로고스, 2008.
- 김영선. *참된 교회-현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김인중.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김인중 목사에게 배우는 행복한 공동체의 비밀*. 서울: 두란노, 2013.
-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부, 2005.
- 명성훈. *교회개혁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1997.
- 문성모. *하용조 목사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10.
- 민장배. *교회개혁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중 교의신학VI(교회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4.
- 박영돈.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 서울: IVP, 2014.
- 박준호. “판교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교회 개혁전략-판교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배종석·양혁승·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13.
- 복음과상황. *그 사람의 서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신상영&맹다미.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89호, 2011. 5. 16.
-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서울: CLC, 2011.
-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서울: 복있는사람, 2012.
- _____.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 이계경. *가슴으로 안은 송파*. 서울: 여성신문사, 2012.
- 이대중. *협동조합, 참 쉽다*. 서울: 푸른지식, 2013.
- 이상대.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일곱 가지 방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8.
- 이상철. *개척교회 1% 성공스토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이재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서울: 흥성사, 2003.
- 이찬수.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우리교회 개척일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 장진원 “회심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이해”. 박사학위논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010.
- 전경일. *맞벌이 부부로 산다는 것*. 서울: 다산북스, 2005.
- 정재영. “협동조합운동의 기독교적 가치와 선교적 가능성”. *기독교 사상*. 통권 제655호, 2013년 7월호.
- 지성환. “포스트모던 시대의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교”.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1.
- 최승근. *WS744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2. 번역서적

- Baxter, Richard. *참 목자상(The Reformed Pastor)*.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Berkouwer, G. C. *개혁주의 교회론(Studies and Dogmatics: The Church)*.
나용화·이승구 역. 서울: CLC, 2006.
- Calvin, John. *기독교강요(하)*.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Chester, Tim and Steve Timmis. *교회다움(Total Church)*. 김경아 역. 서울: IVP,
2012.
- Cole, Neil. *LTG(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07.
_____.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 정성묵 역. 서울: 가나북스, 2006.
- Colson, Charles W. and Ellen S. Vaughn. *이것이 교회이다(The Body)*.
김애진·이종철·헌현숙 역. 서울: 홍성사, 2005.
- Crabb, Larry. *교회를 교회되게(Real Church)*.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1.
- Frost, Michael. *위험한 교회(Exiles: living missionally in a post-christian culture)*.
이대현 역. 서울: SFC, 2009.
-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Ant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4.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종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Horton, Michael.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Christless Christianity)*. 김성웅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_____.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The Christian Faith)*.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Johnston, Robert. K. *영화와 영성(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서울: IVP, 2013.
- Labberton, Mark. *재일소명(Called)*.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 Lloyd-Jones, Martyn. D.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전의우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_____.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McLeod, Andrew.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Holy Cooperation)*.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13.
- Murray, Andrew. *완전한 순종(Absolute Surrender)*. 윤종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 Newbigin, Lesslie.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The Gospel as Public Truth*). 김기현 역. 서울: SFC, 2008.
- _____. 교회란 무엇인가?(*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 Niebuhr, Richard, H.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서울: IVP, 2013.
- Packer, James, I. 거룩의 재발견(*Rediscovering Holiness*). 장인식 역. 서울: 토기장이, 2011.
- Peterson, David. 예배신학(*Engaging with God: A Biblical Theology of Worship*).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Peterson, Eugene, H. 다시 일어서는 목회(*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Platt, David. 래디컬 투게더(*Radical Together*),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2.
- Rainer, Thom S. and Eric Geiger. 단순한 교회(*Simple Church*).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Ricoeur, Paul. 역사와 진리(*History and Truth*). 박건택 역. 서울: 솔로몬, 2002.
- Richardson, Rich.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Reimagining evangelism*). 노종문 역. 서울: IVP, 2008.
- Rima, Samuel D. 성공적인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the Successful Church*). 황성철 역. 서울: 그리심, 2003.
- Sanchez, Daniel, R and Ebbie C. Smith and 김종환. 재생산하는 교회(21세기 교회개혁을 위한 지침서). 박성창 역. 서울: 서로사랑, 2010.
- Schwart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서울: NCD, 2009.
- Simson, Bolfgan,. 가정교회(*Houses that Change the World*).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Smith, James Bryan.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the Good and Beautiful Community*). 전병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 Stetzer, Ed. and David Putman. *선교암호 해독하기(Breaking the Missional Code)*. 이후천&황병배 역. 고양: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2.
- Stott, John R. W.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서울: IVP, 2005.
- _____. *한 백성: 변하지 않는 교회의 특권 4가지(One People)*. 정지영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 Thielicke, Helmut.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심일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4.
- Thompson, W. Oscar Jr, Carolyn T. Ritzman and Claude V. King. *관계중심전도(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Seven Stages for Making Disciples)*. 이해립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Towns, Elmer L. 외.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Zamagni, Stefano. and Vera Zamagni.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La Cooperazione)*. 송성호 역. 서울: 북돋음, 2013.

3. 외국서적

- Hibert, Paul G. and E. Hibert Menses. *Incarnational Minist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5.
- Horton, Michael, S. *People and Place: A Covenant Ecclesiology*. Kentucky: John Knox Press, 2008.
- Leffel, Gregory P. *Faith Seeking Action: Mission, Social Movement, and the Church in Motion*.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7.
- Malphurs, Aubrey. *A New Kind of Church: Understanding Models of Ministry for the 21st Centur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7.
- McGavran, Donald. A. and Winfield C. Arn. *Ten Steps for Church Growth*. New York: Harper&Row, 1977.

Vita of
Ju Won Han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ospel and Hope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May 27, 1972
 Birthplace: Jongro, Seoul,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Ju Yeon with two children, Ye Jun and Ah Yel
 Home Address: 116-308 Gaepo Town Apt., Gaepo-1 dong, Gangnam-gu, Seoul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10, 14, 2008

Education:

B. A.: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98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6
 Th. M. Chongshin University, Seoul, 201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05/2014 to present: Senior Pastor
 of Gospel and Hope Church, Seoul
 2009 to 8/2013 : Assistant Pastor
 of Gaepo dong Church, Seoul